

2017

# 유네스코학생회 활동보고서

K  
U  
S  
A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유네스코 헌장(前文)

이 헌장의 당사국 정부는 그 국민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서로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세계 국민들 사이에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 공통적인 원인이며,  
이 의혹과 불신으로 인한 그들의 불일치가 너무나 자주 전쟁을 일으켰다.  
이제 막 끝난 무서운 대 전쟁은 인간의 존엄, 평등, 상호존중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부인하고,  
이러한 원리 대신에 무지와 편견을 통하여  
인간과 인종의 불평등이라는 교의를 퍼뜨림으로써 일어날 수 있었던 전쟁이었다.  
문화의 광범한 보급과 정의, 자유, 평화를 위한 인류의 교육은  
인간의 존엄에 불가결한 것이며  
또한 모든 국민이 상호원조와 상호관심의 정신으로써 완수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  
정부의 정치적·경제적 조정에만 기초를 둔 평화는  
세계 국민들의 일치되고 영속적이며 성실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  
따라서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 위에 평화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헌장의 당사국은  
교육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고,  
객관적 진리는 구속받지 않고 탐구되어야 하며,  
사상과 지식은 자유로이 교화되어야 함을 확신하면서,  
국민들 사이에 의사소통 수단을 발전 확대시키는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생활을 더욱 진실하고 더욱 완전하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수단을 사용할 것을 동의하고 결의한다.

이에 헌장의 당사국들은  
세계 국민들 사이에 교육적, 과학적, 문화적 관계를 통하여  
국제연합의 설립 목적이며 또한 국제연합 헌장이 선언하고 있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의 복리라는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를 창설한다.

1945년 11월 16일



K  
U  
S  
A



2017

# 유네스코학생회 활동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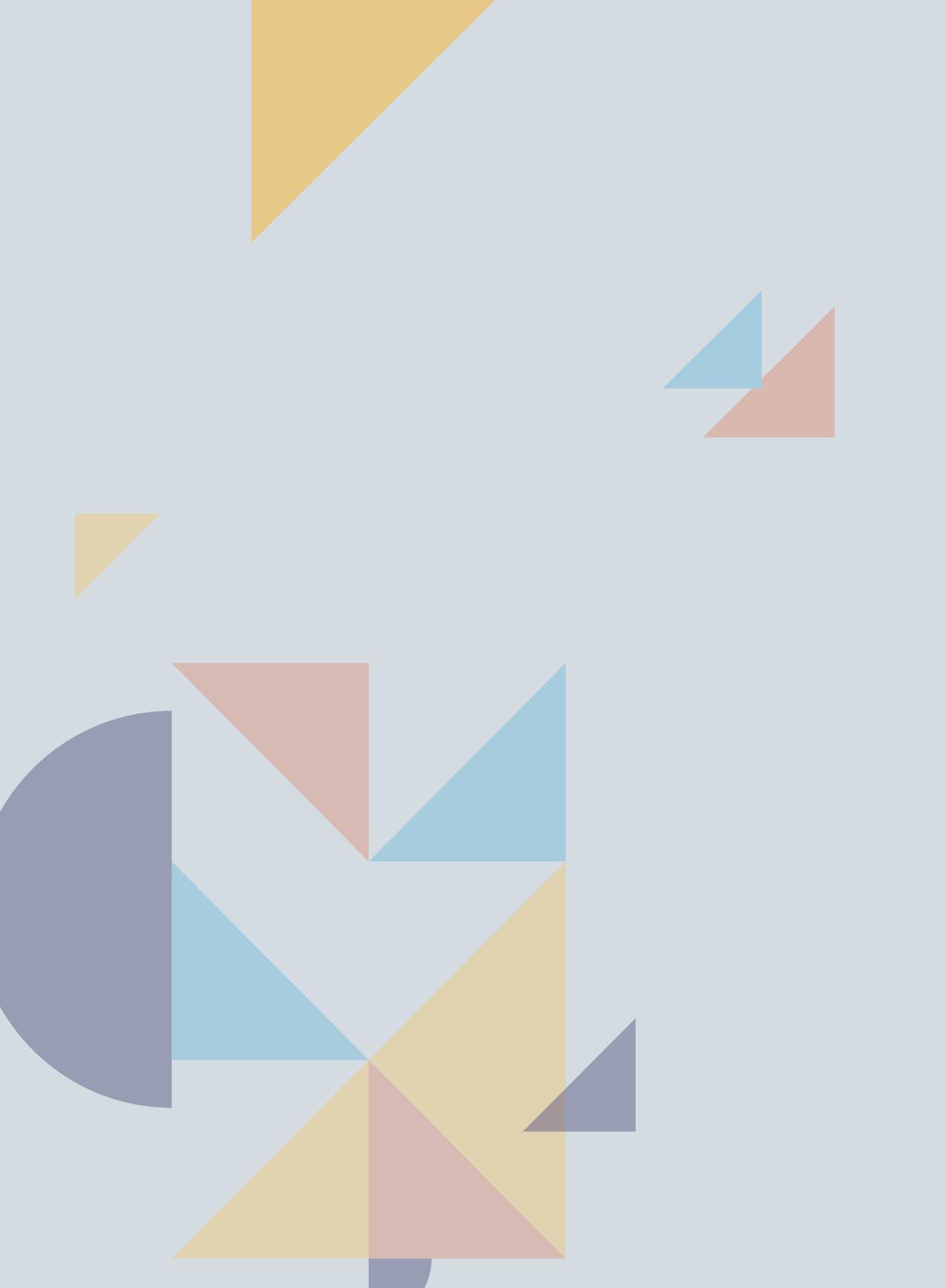
유네스코한국위원회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목차

1	유네스코학생회(KUSA) 개요	07
2	2017 유네스코학생회 현황	11
3	2017 유네스코학생회 SDGs 프로젝트	15
	· 소개	16
	· 1차 활동 보고서	19
	· 2차 활동 보고서	71
4	2017 유네스코학생회 연간보고서	95



1

유네스코학생회  
(KUSA)

개요



## 1. 유네스코학생회(KUSA) 개요

우리나라에서 유네스코 활동의 근간이 되는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국민은 유네스코의 이념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스스로 유네스코 활동에 참여하거나 유네스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클럽은 국민들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있는 방안입니다. 이 중 하나가 유네스코학생회(KUSA, Korean UNESCO Student Association)입니다.

1965년 유네스코협회와 유네스코학생회가 유네스코클럽으로서 활동을 시작했으며 근대화와 고도의 성장기를 거치면서 유네스코 이념을 전파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유네스코학생회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관계가 다소 약해지기도 했으나, 2012년 16개 대학 유네스코학생회 임원들이 모여 유네스코학생협회를 재구성하였고, 이후 2015년 전국 유네스코학생회 창립 50주년을 계기로 다시 협력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50주년 때 유네스코학생회의 발전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해 ‘행동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만드는 열린 KUSA’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출처: 유네스코학생회홈페이지, [www.kusa.unesco.or.kr](http://www.kusa.unesco.or.kr))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13년부터 유네스코학생회의 활동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활동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유네스코학생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외 워크캠프 파견, 유네스코본부 청년포럼 참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연수인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네스코학생회 활동을 지원해왔습니다. 2016년에는 유네스코학생회 등록제를 실시하면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여 현재 약 30여개의 유네스코학생회에서 약 2천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학생회는 유네스코 이념을 전파하고 확산하려는 자발적인 움직임이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유네스코학생회  
(KUSA)

**2017 현황**



## 2. 2017 유네스코학생회 현황 (총 31개교 등록)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경기대학교	<b>유네스코학생회</b> Korean UNESCO Student Association		경북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국민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동아대학교
명지대학교	삼육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서울/수원 통합)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송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대학교
전남대학교	<b>유네스코학생회</b> Korean UNESCO Student Association		전주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	한양대학교 ERICA	홍익대학교	한국유네스코 학생협회



# 3

유네스코학생회  
(KUSA)

## 2017 SDGs프로젝트

소개	16
1차 활동 보고서	19
2차 활동 보고서	71

### 3. 2017 유네스코학생회 SDGs 프로젝트

#### 소개



2013년부터 시작한 유네스코학생회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는 SDGs 프로젝트를 선정, 지원했습니다. 2015년에 유엔이 선포한 지속가능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 의미를 알리기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학생회를 대상으로 17개 목표의 이행을 위한 'SDGs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SDGs 전반 또는 특정 목표와 관련된 교육, 홍보, 실천활동을 프로젝트로 기획하여 신청하는 유네스코학생회에 활동지원금을 지원하고 활동 후에 참가자들에게 수료증을 발급했습니다.

1차(3월~8월), 2차(9월~11월)로 나뉘어 두 번 진행된 SDGs 프로젝트에는 전국에서 총 13팀이 활동했습니다. 선발 기준은 △적합성: 프로젝트의 목적과 내용이 지원취지에 부합하는가 △독창성: 프로젝트의 내용이 독창적이고 차별성이 있는가 △실천가능성: 내용, 인력 상 계획대로 실천될 가능성이 높은가 △파급효과: 프로젝트가 여타 KUSA, 대학 및 지역사회 내 인식 등의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등이었습니다. 참가 팀들은 빈곤종식, 성평등, 교육, 물 등 다양한 SDGs 활동을 했고, 그 결과는 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SDGs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인 대학생들이 SDGs에 대해 좀 더 나은 이해를 가지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참가현황

1차				
번호	학교명	관련 SDGs	프로젝트명	참가인원(명)
1	가톨릭관동대학교	3, 4, 5, 10, 11, 15, 16	Teresa effect (T.E)	54
2	강릉원주대학교	1, 4	행복 나눔을 Dream	21
3	경기대학교	6	더 깨끗한 물로 만드는 더 나은 세상	28
4	서울여자대학교	1, 15, 16	러버덕	9
5	숙명여자대학교	5	SDGs 5. 성평등 실현	17
6	순천향대학교	15, 16	IL-DAYS	10
7	울산대학교	4, 10, 11, 15	넉넉(Knock Knock)	10
8	전남대학교	16	홍익 전대 : 널리 전남대를 이롭게 하자	7
9	한양대학교 ERICA	3, 4, 16, 17	UNESCO X KUSA in 종묘	17

2차				
번호	학교명	관련 SDGs	프로젝트명	참가인원(명)
1	경기대학교	16	평화와 안보란 무엇인가?	18
2	세종대학교	4, 17	Design in KUSA	10
3	순천향대학교	3, 14	참사랑	10
4	전남대학교	16	지화자(知和者)교육	7



## 1차 활동보고서 (3월~8월)

가톨릭관동대학교 · 20
강릉원주대학교 · 24
경기대학교 · 34
서울여자대학교 · 38
숙명여자대학교 · 42
순천향대학교 · 48
울산대학교 · 54
전남대학교 · 62
한양대학교 ERICA · 66



활동분야



결과보고서

활동목적으로는 지역사회와 인간의 복지증진, 그리고 개인과 집단 간의 여러 사회문제의 영향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공익의 여러 요소를 증진 또는 촉진시키기 위함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수적으로 남을 돕는 활동을 통하여 일어나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변화를 의미하며, 남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거나 나눔을 보지만 해도 인체의 면역기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개최하는 강릉단오제와 같은 행사와 캠페인 부스 활동 프로그램(어린이 청소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과 포남초등학교와 운양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1:1멘토링-멘토들이 멘티에게 맞는 주차 활동을 직접 계획하는 자유롭고 활동적인 방과 후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진행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은 학대아동 같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을 위주로 멘토2 멘티1로 구성하며 특히 회복력이 조금 더 어려운 여아를 대상으로 2:1 멘토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이라는 부스활동(병원, 학교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강릉 내에 4개의 경찰서에서는 치안 활동(도보순찰)을 주로 하고 있는데, 순찰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노인 등 보호를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를 돕고,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사회를 위해 도움을 주시는 경찰관분들과 협력하여 민간경비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 주변에 있는 오죽헌과 강릉 단오제 등의

임원진

직책	이름	학과	직책	이름	학과
회장	이아현	경찰행정학과	기획부장	박나연	경찰행정학과
부회장	서동영	경찰행정학과	홍보부장	김용성	경찰행정학과
총무	홍현진	경찰행정학과			

외 회원 49명

보존과 발전을 위해 문화재를 탐방하고, 육상 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해 우리 학교에서 가까운 산과 공원 등을 위주로 등산 및 미화활동을 하는 프로그램 활동을 하였다.

위의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의 결속력과 유대관계가 강화되었으며, 구 성원들과의 공유를 통해 공통의 관심사와 목표가 생겨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기 자신을 발전시켰고, 봉사활동을 통해 자아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는 등 의미 있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며 이를 발판으로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 팀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팀원들과 여러 기관의 도움을 통해 어려운 점은 크게 없었다.

## 활동사진



강릉시청소년 수련관 봉사활동



포남초등학교 멘토링



초록우산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종동아리 프리마켓에서 음료를 판매



3일 동안 전 학년 대상의 동아리 홍보



동부, 서부, 중부, 남부의 경찰서 봉사



활동분야



결과보고서

강릉원주대 쿠사에서는 SDGs 프로젝트에서 2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3개의 팀으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운양초등학교 멘토링, 두 번째는 오성학교 멘토링, 마지막으로 꿈도락(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처음 운양초등학교 멘토링 봉사활동은 일반 초등학교에 가서 5~6학년 사춘기 학생들과 함께 멘토, 멘티 활동을 하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강릉이 서울보다 교육의 기회가 적다 보니 대학생들이 나서서 아이들의 교육 기회를 주고 싶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사춘기 시기인 초등학교생이랑 대학생들과 같이 멘토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활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고 수줍어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차츰 친해지게 되고 사춘기 학생들의 여러 가지 고민도 듣고 같이 공감해주고 상담해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첫 주에는 멘토와 멘티의 짝을 정하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다들 어색해했지만 짝을 정하고 활동서약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신나는 윷놀이, 주먹밥 만들기, 마피아 게임, 3종 경기, 나무 만들기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우리 또한 많은 점을 배운 거 같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함과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력, 그리고 나름대로의 많은 고민을 알게 되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연필로 공부하는 것만이 공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유익한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국어, 영어, 수학 공부만 강조된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하루빨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부에 재미를 느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재미있어서 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임원진					
직책	이름	학과	직책	이름	학과
팀장	이진우	전자공학과	부팀장	권종혁	무역학과
부팀장	심봉섭	토목공학과	부팀장	최수빈	관광경영학과
회원					
번호	이름	학과	번호	이름	학과
5	강태기	관광경영학과	14	정영훈	전자공학과
6	이지윤	해양식품공학과	15	정지은	치위생학과
7	김윤하	영어영문학과	16	김윤지	치위생학과
8	손민기	수학과	17	최수진	수학과
9	김민지	식품영양학과	18	권동관	경영학과
10	박건웅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19	모준관	토목공학과
11	배소연	자치행정학과	20	서혜진	식품영양학과
12	김혜진	식품영양학과	21	전철우	토목공학과
13	신형식	환경조경학과			

두 번째 봉사료 오성학교 멘토링입니다. 오성학교는 운양초등학교 멘토링과 달리 특수학교로, 장애학생들만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장애인들에 대한 시선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우 친구들과 함께 멘토 활동을 할 기회도 많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춘기 학생들을 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될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신체적으로 불편한 친구들도 있고 정신적으로 불편한 친구들이 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는 것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프로그램은 비눗방울 만들기, 과자집 만들기, 놀이방에서 놀기, 공놀이 등이었습니다. 비눗방울 만들 때는 일반 아이들보다 훨씬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순수한 모습을 가진 아이들인데 단지 몸이 불편하고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놀리고 선입견을 품고 바라보는 사회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부터라도 시선을 바꾸고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조금씩이라도 바꿔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활동에 참여한 모든 친구도 처음에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았지만 같이 활동하면서 거부감이 사라지고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3번째 봉사는 꿈도락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도시락을 배달해서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조금이나마 그분들의 생활을 알아보고 현 실태가 어떤지 파악하기 위해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음식이 상할 수도 있고 식사를 이미 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도시락이 아닌 생필품 쌀, 물, 김을 배달했습니다. 요즘 개인신상정보에 민감해서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명단을 받지 못해서 조금 힘들었지만, 소수의 동사무소에서 다행히 명단을 주셔서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 기간 동안 총 10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맨 처음으로는 산속에 살고 계신 할아버지 집에 방문했는데, '집으로' 영화에서 보았던 집과 똑같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반갑게 맞이해주셨는데 아내분은 돌아가시고 자식들도 연락이 끊기고 혼자 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손가락 한 마디가 없는 장애를 가지고 계셔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 들으면서 어르신들은 단순히 음식을 받는 것 보다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기억에 남았던 분은 저희가 가

도 전에 이미 밖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입니다. 자식도 없이, 사람을 그리워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점은 국가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과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혜택을 알지 못해서 못 받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흔한 봉사활동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하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못하면 이 사회는 더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지고 아직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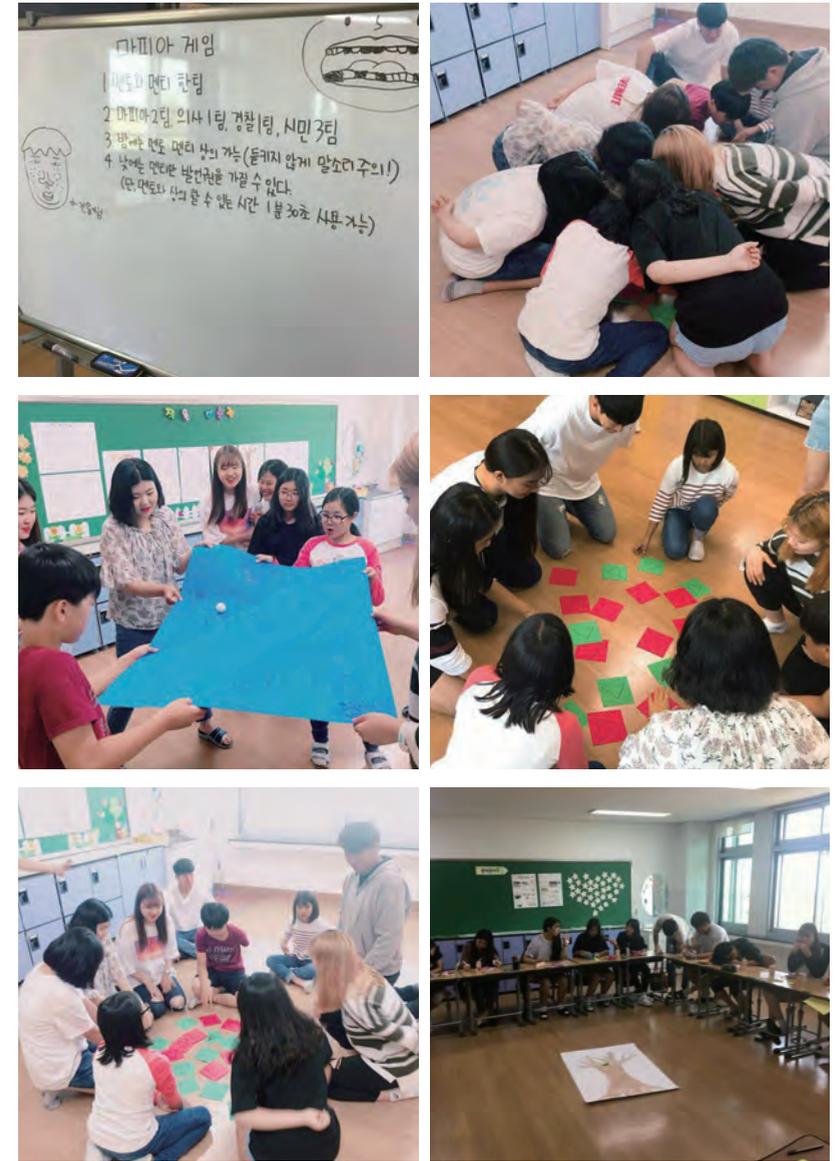
이번 SDGs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부터 장애인들에 대한 시선개선 등 목표를 가지고 봉사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실천까지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항상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해서 아쉬움으로 남아있었는데 유네스코에서 지원을 해주어서 여러 학생들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고 보람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처음에 SDGs 프로젝트가 어렵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돼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웃 학교인 가톨릭 관동대학교 KUSA 회장님께서 도와주셔서 뒤늦게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로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한 번으로 끝내는 활동이 아닌 앞으로 지속해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항상 봉사활동단체에서 받아서 봉사활동을 한 것과는 다르게 많을 것을 느끼고 배우게 돼서 더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프로젝트가 계속되어서 내년 신입생들과 재학생, 복학생들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활동사진

운양초 멘토링 활동사진



오성학교 멘토링 활동사진



활동사진

오성학교 멘토링 활동사진



오성학교 멘토링 활동사진



꿈도락(도시락 배달)



꿈도락(도시락 배달)





활동분야



결과보고서

경기대학교 유네스코학생회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SDGs에 대해 공부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주제는 SDGs 6번 식수와 위생 문제 해결에 관한 것으로 5월에 실시했던 캠페인을 주요 활동으로 삼았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SDGs의 주제와 목적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함께 실천하는 노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스스로도 세미나와 거리 홍보를 통해 공부하고 소통하면서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했으며, 아울러 캠페인에는 모금 활동도 포함되어 있어 식수, 위생 문제로 고통 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을 위해 저희는 먼저 세미나를 통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 세계에 식수와 위생상태 문제로 인해 질병, 기아 등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들을 위해 어떤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는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가 세미나의 주요 내용이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저희는 캠페인을 구상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식수, 위생 문제의 심각성을 교육하고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기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보다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소형 뽑기 기계를 구입해 각종 상품 추첨도 병행했으며, 식수, 위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라이프 스트로우를 준비해 사람들에게 체험하게 함으로써 재미와 교육 두 가지 모두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몇 차례의 회의와 물품 마련 등을 거쳐 지난 5월 29일 부터 5월 31일 까지 본격적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거리부스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교내 학우들이 참여하도록 홍보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퀴즈를 통해 식수, 위생의

임원진					
직책	이름	학과	직책	이름	학과
팀장	김정민	사학과	부팀장	류승연	문헌정보학과
회원					
번호	이름	학과	번호	이름	학과
3	강주은	사학과	16	이성현	사학과
4	강지영	법학과	17	이예빈	일어일문학과
5	김다해	사학과	18	이예슬	무역학과
6	김유빈	사학과	19	이정현	경제학과
7	김현지	국제관계학과	20	이지현	교정보호학과
8	박승아	법학과	21	이충선	국제관계학과
9	박태훈	법학과	22	이혜지	사학과
10	방선진	국제관계학과	23	임영우	경제학과
11	성지혜	무역학과	24	장아영	무역학과
12	송명훈	무역학과	25	정소연	사회복지학과
13	양나래	사학과	26	정진우	국제관계학과
14	유미연	사학과	27	조소은	사학과
15	윤서현	무역학과	28	허승희	무역학과

문제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는지 알아보고 진행 인원이 추가적인 설명을 합니다. 설명 이후엔 라이프 스트로우를 직접 체험하게 하는데 음료수를 넣어 음료수가 걸러지는 과정을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뽑기기계를 활용해 캡슐을 뽑는데 캡슐 안에는 일상생활에서 물을 절약 할 수 있는 방안과 상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때 상품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천 원 정도 모금액을 건넵니다. 모금액은 식수, 위생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유니세프 후원금으로 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니세프 내 후원 프로그램인 생명을 구하는 선물에서 가정용 위생키트를 구매하는데 쓰였습니다. 모금액은 18만원 정도가 모여 후원금으로 잘 전달되었습니다.

3일 간의 캠페인을 통해 많은 학우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식수, 위생 상태의 현실에 대해 관심 가져 주셨으며 모금에도 많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또한 이번 캠페인을 통해 경기대학교 유네스코학생회가 학우들에게 많이 알려 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아쉬웠던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체험 효과를 얻기 위해 계획했던 라이프 스트로우 체험은 스트로우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행사 첫날에만 사용했고 이후에는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라이프 스트로우에 과일 음료수를 담아 맛이 희석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였으나, 음료수의 맛에는 별 차이가 없었고 캠페인이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다음번 유사한 활동을 할 때에는 사용법에 대해 보다 신중하려 합니다.

캠페인이 종료된 후 방학을 맞았고 이번 프로젝트를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지회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블로그 포스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포스팅 주제는 SDGs 주제 중 한 가지를 정해 회원 각자가 포스팅을 하는 것입니다. 방학 중이었지만 회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SDGs 에 대해서도 보다 깊은 이해를 가져 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번 SDGs 프로젝트는 저희 지회에 매우 뜻 깊은 기회였습니다. 학생 동아리 특성상 의미있는 활동을 기획하고 싶어도 예산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에는 예산이 충분히 마련되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적인 홍보와 함께 상품 추천 기계, 다양한 상품을 비치할 수 있어 학우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재미와 보람을 함께 느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마련한 장비와 도구들은 추후에도 계속 사용될 예정이며 발생한 문제점의 경우 피드백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 활동사진



KUSA 경기지회 물 절약 세미나



캠페인 진행 요원 사진



거리 홍보 사진



즐거운 상품 추천



식수, 위생에 관한 교육



모금활동에 참여해주는 학우 분



활동분야



결과보고서

서울여대 KUSA는 매달 남양주 유기견 보호 센터로 봉사를 다닌다. 여느 유기견 보호 센터와 같이 위생적이고 깨끗한 곳은 아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는 강아지들이 있는 반면 자신의 몸에 손도 대지 못하게 하는 학대받은 강아지들 또한 많다. 방 한켠에는 몸의 절반 이상이 화상에 입어 치료를 받느라 격리 조치 된 강아지도 있다. 화상을 입은 강아지에 대해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이렇게 심하게 다쳤음에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강아지들이 보호 센터 내에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강아지 한 마리당 수술비, 입원비로 거금이 들어가는데 소장님 혼자 감당하시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유기견들을 위해 봉사를 하는 것 이외에도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었다. 금전적으로 도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어 대신 한 달에 한 번 다니던 유기견 봉사를 세 번으로 늘리고 봉사 시간 또한 3시간으로 늘렸다.

유기견 봉사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던 중 SDGs 프로젝트에 참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우리 서울여대 쿠사는 유기견들을 위해 활동을 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SDGs의 일환으로 수익사업을 진행해 수익금을 전부 남양주 유기견 보호센터에 기부하기로 했다. 서울여자대학교 축제 기간인 5월 17,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강 시간에 54기, 55기 동아리원들이 수익사업 부스에서 각테일을 팔았다. 각테일을 제조하고 있는 동안 옆에서 다른 동아리원이 SDGs에 대해 설명하며 수익사업의 취지를 알렸다. 첫 번째 날에는 예상보다 많이 팔리지 않아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두 번째 날에는 예상했던 것만큼 팔려서 뿌듯하고 안심했다. 서울여자대학교 학우분들, 교수님들이 유기견들을 위해 수익의 전액을 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관심을

임원진					
직책	이름	학과	직책	이름	학과
회장	조윤주	식품공학전공	총무	박은지	경영학과
부회장	우성은	경영학과	봉사부장	김민지	사회복지학과
회원					
번호	이름	학과	번호	이름	학과
3	김가은	문헌정보학과	6	최은정	영어영문학과
4	송민주	식품공학전공	7	김도현	경영학과
5	전유진	교육심리학과			

주셨다. 많은 분들이 칵테일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가시며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그 결과로 수익사업은 무사히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 축제 기간에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공강 시간이 별로 없는 친구들은 많이 참여할 수 없었던 점이 아쉬웠지만, 다들 시간이 날 때마다 부스에 와서 열심히 도와주워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모두가 처음 해 보는 일이라 첫 날에는 많이들 우왕좌왕했지만, 금방 일에 적응하며 손님들을 끌어오고 능숙하게 처리했다.

하루 종일 수업 들으랴 서서 일하랴 많이들 힘들어 했지만, 함께 일을 하며 별로 친하지 않았던 동아리원들과도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무엇보다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보람차고 뿌듯했다. 수익사업이 끝난 후 6월 9일 유기견 봉사를 마치고 수익금 전부를 소장님께 전달해드렸다. 봉사를 한 후면 항상 힘들지만 뿌듯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 날은 유독 더 보람차고 앞으로의 봉사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 잡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런 경험과 생각, 느낌들을 동아리원들뿐만 아니라 서울여자대학교 일반 학우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해 지원자를 받아 함께 유기견 봉사를 가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유기견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앞으로 꾸준히 봉사를 다닐 계기가 될 것이다. 이 물결이 커져 우리 스스로, 주변 사람, 세상 사람들까지도 생명을 소중하게 하고 주변을 둘러보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활동사진



쿠사 회원들과 칵테일 제조



수익에 대한 기부 설명 및 홍보



남양주 유기견 센터 봉사



남양주 유기견 센터 봉사



기부금 전달



활동분야



결과보고서

전 세계에 만연한 성 차별(특히 여성 차별 관련)을 타파하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차별을 인식하고, 숙명여자대학교 학우들, 시민들에게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여 올바른 젠더 의식을 확산시키고자 SDGs 프로젝트에 지원하였다. 활동을 계획하는 단계에 있어서, 숙명여자대학교쿠사 회원들을 중심으로 토론, 세미나를 거치고, 다른 쿠사 지회 회원들과 함께 토론을 하는 것을 첫 번째 단계로 설정하였다. 그 이후에는 여성 인권과 관련하여 연사를 섭외해서 강연을 열어 누구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1. 사업을 주도하는 숙명여대쿠사 회원들이 먼저 여성 차별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인식하고 있던 차별을 세미나를 통하여 구체화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한다. 교내 여성학 동아리와의 세미나, 동덕여대, 서울여대, 숭실대쿠사와 토론을 통하여 진행한다.
2. 세계 여성 인권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외국인이 많은 지역에 가서 인터뷰를 실시한다. 세계 각국의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다. 명동이나 이태원에서 진행 할 예정이다. 설문조사 또는 개별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3. 연사를 초대해서 숙명여대 학우, 쿠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여성 인권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 보다 많은 이들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심각성을 깨닫게 한다.
4. 지금까지 공부하고 활동했던 내용을 책자나 브로슈어로 제작하여 학교 또는 외부에 나누어주고, 퀴즈나 인터뷰를 통하여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거나, 이러한 주제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에게 문제의식을 심어준다.

임원진					
직책	이름	학과	직책	이름	학과
팀장	조민기	교육학부	부팀장	박채림	프랑스언어문화학
회원					
번호	이름	학과	번호	이름	학과
3	양동연	관현학과	11	이효민	아동복지학과
4	강수린	문화관광학과	12	변유정	경영학부
5	장은숨	프랑스언어문화학	13	고은희	아동복지학과
6	하승원	문헌정보학과	14	이현정	기계시스템학과
7	김민정	경영학부	15	정나희	프랑스언어문화학
8	이명지	경제학과	16	장지안	프랑스언어문화학
9	김희란	교육학부	17	이승연	기계시스템학과
10	박은빈	영어영문학과			

그러나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다.

2017년도 신입 회원이 가입하기 전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마쳐야 했기 때문에, 신입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없었고, 또한 방학 기간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회원들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팀장인 본인이 모든 것을 계획한다고 하여도, 결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주도하는 것은 다수의 회원이기 때문에, 회원들의 생각을 반영하여 계획을 세우고 싶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기가 되고, 신입 회원을 모두 모집한 3월 말에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아이디어를 받아, 주제는 동일하되, 프로젝트의 진행 방향을 약간 변경하기로 하였다. 결국 프로젝트의 진행이 4월 초부터 진행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생각하였던 것을 다 실천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이 되었던 연사 섭외는 시간과 여러가지 여건 상 취소하기로 하고, 대신에 쿠사 회원들과 지도 교수님이 만나서 지도교수님께 여성 인권과 관련한 특강을 받기로 하였다. 동아리 회원들은 평소 지도 교수님을 많이 만날 일이 없는데 이러한 계기로 교수님과 동아리 회원들간의 관계를 형성한 것 또한 이 활동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기회의 시간에 여성 인권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각자 자신이 인상 깊게 읽었던 책, 또는 인상 깊었던 영화나 뉴스 기사 등을 숙명여자대학교 쿠사 카페에 올리고, 정기회의 시간 전에 다른 회원들이 올린 게시물을 모두 정독한 이후에 토론을 진행했다. 육아 휴직, 유리 천장, 여성 혐오 등 각 회원들이 관심 있는 주제가 다양하여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모나리자 스마일'이라는 영화 속에 나온 문제의식에 대하여 토론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데, 이 영화는 미국 1950년대의 명문여자대학교의 학생들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이다. 이 학생들은 현모양처가 되는 것을 최고 목표로 삼고 공부를 하며, 여성과 남성은 각각 정해진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여자대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토론했던 것이 의미가 있었다. 또한 여성 혐오에 대한 개념, 관련 영상을 찾아보면서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던 여성 혐오라는 개념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회원들 대다수가 여성이 차별받고, 보이지 않는 차별에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숙명여자대학교의 축제인 청파제 기간에 부스를 운영하였다. 토론을 하고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것들을 바탕으로 교내 학생들에게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지고자 활동을 진행하였다. 초반계획은 음료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유네스코에 기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상보다 수익이 적어, 이 금액을 기부하는 것보다, 향후에 활동하는 데에 보태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미숫가루, 아이스티, 머랭쿠키를 판매하였는데, 음료의 컵홀더, 머랭 쿠키의 포장용지에 여성 인권과 관련한 문구를 스티커로 제작하여 붙였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측에 홍보 포스터, 책자 등을 지원 받아 함께 나눠 주었다.

프로젝트 기대효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막연하게만 생각하던 젠더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쿠사 회원들 스스로 깨어있는 의식, 세계시민 의식을 가질 수 있다'와 '숙명여대 학우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캠페인, 강연 등을 진행하여 성평등 문제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알릴 수 있고 문제의식이 없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였다. 2년간 쿠사 활동을 하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 처음이라 팀장인 본인도 혼란스러웠다. 다만 미숙한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의 기대 효과에 어느 정도 다가갔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마냥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진행하였다는 것에 자부심도 생겼다. 또한 동아리원들과 소통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소통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개인적으로도 얻은 것이 많은 활동이었다. 다만 다음부터 이러한 비슷한 활동을 진행할 때에는,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향후에 후배 기수가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 이러한 보완점을 설명해주어,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자 한다.

활동사진



토론



지도교수님과의 만남



캠페인 사진





활동분야



결과보고서

저희 IL-DAYS 팀은 유네스코학생회로서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 오늘날의 필요도 충족시키는' 개념으로 사회와 경제 발전에 더불어 환경보호를 함께 이루는 미래지향적인 발전) 내용을 재확인하고 홍보하며, 순천향대학교 유네스코학생회뿐만 아니라 타 대학에 있는 학생들과도 함께 활동을 나누어 공동체 정신과 봉사 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이 하기 어려운 활동을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실시함으로써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기대치와 신뢰감을 높이고, 서로 협동하며 진행하기 때문에 친밀감 형성에 도움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본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활동은 예정과 다르게 총 2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4월 5일 식목일이 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심는 이유를 알고 있곤 합니다. 이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나무를 심는 이유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함과 사막화 방지, 그리고 미래 세대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만들어 주기 위함을 강조하여 홍보하였고, 뽑기라는 오락적 요소를 이용하여 순위에 따라 교내에서 나무 대신 바질, 토마토 재배 세트, 씨앗 연필, 히아신스, 치자, 툴립, 소피아 등을 증정하는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하여 나무를 보호하자, 나무를 많이 심자에서 더 발전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한 SDG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유네스코의 봉사, 헌신 정신으로 굳혀진 이미지에서 더 활동적이고 문화적인 활동, 교육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임원진					
직책	이름	학과	직책	이름	학과
팀장	김세린	관광경영학과	부팀장	이소현	관광경영학과
회원					
번호	이름	학과	번호	이름	학과
3	조정윤	관광경영학과	7	임슬아	중어중문학과
4	정수희	중어중문학과	8	한예솔	IT금융보험학과
5	강문홍	환경보건학과	9	전소윤	사물인터넷학과
6	주수영	환경보건학과	10	김유진	사물인터넷학과

5월 15일 세계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16번과 연관된 'Love Family, No Violence' 부스 운영을 설치하여 운영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몇 명의 아이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는지 통계자료를 보여주고 가정폭력의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안내함으로 인해 폭력이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폭언 등과 같은 것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정폭력에 반대한다는 서약의 의미로 지장을 찍어서 지장 나무를 만드는 활동과 'not violence, with love' 메시지가 적힌 실리콘 팔찌를 선착순으로 배부하여 모두가 이 활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을 감시하는 감시자의 역할을 한다는 암묵적인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위 활동들 통하여 조원들 모두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의 실태를 각각 조사해보고 타 국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다수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 건강할 권리들을 무시당한 채 힘겨운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dot프로젝트 (폭력을 당하고 있는 친구들이 손바닥이나 종이에 검은 점(dot)을 표시하여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를 보거나 받은 사람이 경찰이나 관련 단체에 신고하여 그 친구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처럼 이런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사회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폭력의 종류가 단지 신체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언어적 등 모든 수단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알게 모르게 우리도 당할 수 있는 폭력을 좀 더 경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SDGs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처럼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좋았던 점도 많았지만, 아쉽거나 모자랐다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쿠사 동아리 내부적으로는 평일에 주로 캠페인 부스 운영을 하다 보니 모든 사람이 시간이 딱 맞지 않아서 나오는 사람들만 나오게 되었다는 점과, 다달이 할 예정이었으나 방학 때 만나기가 어려워 결국 2회 부스 운영을 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 활동 부분에서는 부스를 학교 총학생회에서 대여하여 사용하다 보니 위치 부분에서도 좀 더 다양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삼아 우리 순천향대KUSA는 2학기 SDGs 프로젝트 모집 시 다시 한 번 더 신청하여 더 흥미로운 주제로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활동을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두가 힘을 합쳐 지속 가능

개발 목적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알리는 데에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저희 동아리를 믿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신 유네스코 위원회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즐거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원 소감

**김세린:** 어떻게 보면 작은 활동이지만 나로 시작하여 친구들, 학교 학우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 파급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를 포함하여 내 미래의 후손들과 아이들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어서 정말 행복했고 학생의 의미를 다시 느끼게 된 계기였습니다.

**이소현:** 가정의 날, 식목일 등등 각 날에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하게 되니까 그 날이 어떤 의미인지 더욱 찾아보게 되고 되새길 수 있어서 뜻 깊은 활동이었습니다.

**정수희:** 제가 미처 몰랐던 물의 날이나 식목일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좋았습니다.

**임슬아:** 쿠사라는 이름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쿠사에서 더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조정윤:** 쿠사를 하면서 SDG의 의미도 알게 되고, 모든 활동이 즐거웠고 알차습니다! 교육적이지만 즐거운 활동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추억들이 가득하네요~ 2학기 쿠사 활동도 기대됩니다!

**김유진:** SDGs 프로젝트를 통해 부스운영을 하면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날, 물의 날 등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어서 즐거웠습니다!

**전소윤:** 동아리원들과 협동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활동한 게 인상 깊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심코 지나갔던 날 들을 관심을 가져보는 계기가 되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예솔:** SDGs 프로젝트를 통해 가정의 날, 물의 날 등 부스를 운영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부스 운영과정과 사람들과의 소통 그리고 행사의 내용들까지 모두 유익했습니다.

**강문홍:** 알지 못하고 지나쳤을 날을 부스 운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 뿌듯했고 나도 몰랐던 여러 날들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어 즐겁게 활동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사진



4월 5일 식목일 데이 부스운영



5월 23일 세계 가정의 날 맞이 가정폭력 반대 부스운영



4월 5일 부스운영 후 페이스북 인증샷



4월 5일 부스운영 후 페이스북 인증샷2



5월 23일 부스운영 활동



1학기 SDG부스 운영을 마치고 회원들과 함께 회식





## 활동분야



## 결과보고서

울산대학교 KUSA는 SDGs 17개 목표 중 4번 교육의 질 향상과 10번 불평등 감소, 11번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15번 육상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넉넉(knock knock)을 통해 활동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울산 도호부사 행차, 향토 사랑 대행진, 조국 순례 대행진, 반구대 암각화 봉사 활동 등이 있습니다. 울산 도호부사 행차에서는 울산 중구 문화원과 협력하여 고려 시대의 인물로 분장하고 예전의 도호부 관할을 행차하며 도호부의 역할과 규모 등을 알아보는 봉사 활동을 가졌습니다. 향토 사랑 대행진에서는 나고 자란 고향의 땅을 직접 밟으며 쓰레기를 주우며 힘든 상황에서 서로 의지하고 협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국 순례 대행진에서는 대략 300km 정도의 거리를 15박 16일 동안 많은 인원들과 함께 걸으며 조국의 땅을 좀 더 알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자라고 앞으로도 살아갈 조국에 대하여 애정과 스스로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육상생태계 보호를 위해 방치되어 있던 쓰레기들을 줍고 분리수거 하는 활동 또한 병행하였습니다. 반구대 암각화 봉사에서는 울산의 귀중한 유적이자 앞으로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이 있는 반구대 암각화를 보호하는 활동과 선사시대의 생활을 남녀노소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선사시대에 대한 생활양식과 풍습 등에 대해 다양한 사람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성과는, 우선 SDGs 프로젝트에 참가한 다양한 인원들과 토의했을 때 활동 전과 후의 차이가 두드러졌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접근하기 용이하게 바뀌었고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지식을 알게 되고 직접 체

임원진					
직책	이름	학과	직책	이름	학과
팀장	윤상혁	IT 융합 전공	부팀장	이은혁	전기전자공학부
회원					
번호	이름	학과	번호	이름	학과
3	박준석	첨단소재공학부	7	한민종	전기전자공학부
4	구지연	아동가정복지학과	8	강한성	전기전자공학부
5	김나영	아동가정복지학과	9	이동민	전기전자공학부
6	조성훈	전기전자공학부			

협하면서 지속가능한 목표들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호부사 행차의 경우 도호부사라는 관직이 존재했던 것도 몰랐던 팀원들이 고려와 조선 시대의 관직인 도호부사에 대해 알게 되고 예전 도호부의 관할이었던 구역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도호부의 관할이었던 곳곳에 있는 문화재들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거에 대한 다양한 지식들을 직접 습득하고 체험 할 수 있었으며 중구 문화원과 함께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다양한 사람들과 이 지식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역사적으로 가치있는 유산들을 보존하여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게 보탬습니다.

향토 사랑 대행진과 조국 순례 대행진은 크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는데 유네스코학생회의 이념에 따라 사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개인들의 건전한 정신과 지도자적 인격의 함양을 꾀하고 지역사회 개발 및 인격의 함양을 목표로 협력하여 성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활동 이후 설문조사를 하였을 때 거의 모든 인원들이 힘든 일을 이겨낸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며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답하였습니다. 여름에 진행하는 행사의 특성상 굉장히 덥고 그늘이 없는 길을 걸을 때면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식염을 3개씩 먹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르막길을 오를 때면 사람들 모두가 힘들어 했지만 여력이 있는 사람이 뒷사람을 끌어주고 가방을 밀어주며 서로 의지했습니다. 누군가는 굉장히 미련한 짓이라 말할 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왜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냐고 말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행을 이겨낸 참가자들은 단순히 더위와 다리의 통증을 이겨낸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이겨낸 것이며, SDGs 프로젝트의 다양한 목표들이 개개인에서 시작해서 마침내 사회로 나아가야한다는 점을 봤을 때 굉장히 의미 있고 효과 있었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라고 한다면 프로젝트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수동적인 자세로 임하는 팀원과 참가자가 생겼던 것입니다. 당장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 바로 앞에 있는 것 밖에 보이지 않아 거시적인 목표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도 원목표와 본질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목표를 확실히 공지하고 중간 점검과 일이 끝난 뒤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무엇이 잘 되었고 어떤 점은 아쉬웠다는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꽤 간단하지만 이 방법은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팀원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고 다시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SDGs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세계가 다함께 진행해야 할 지속가능한 목표들이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목표들의 시작은 거창하고 대단하며 어려운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규모 봉사활동, 혁신적인 환경보호 시설, 국가단위의 발전 사업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의식 함양, 지속가능한 목표들을 확실히 인지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진지하게 논의하는 태도, 눈앞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마음가짐 등의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보고 접근하니 지속가능한 목표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더라도 저와 제 팀원들은 이러한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또 다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연계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기회가 다시 있다면 꼭 참가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위해서 준비하고 실행하고 성과를 보았을 때 굉장히 벅찬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저희 팀뿐만 아니라 여러 팀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개인, 단체,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가 지속가능한 목표에 좀 더 근접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대략 다섯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도 다섯 사람은 또 개개인이 다섯 사람에게 영향을, 그 사람들이 또 다섯 사람에게 영향을, 하고 생각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기회를 만들어 주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긍정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목표들을 널리 알리고 더 접근하기 쉽게 만든다면 세상은 분명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한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데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활동사진



SDGs 프로젝트 설명 중



도호부사 행차 분장 중



향토 사랑 대행진 중



향토 사랑 대행진 중



도호부사 행차 중



도호부사 행차 중



조국 순례 대행진 중



조국 순례 대행진 중



도호부사 행차 중



향토 사랑 대행진 중



조국 순례 대행진 완주 모습



반구대 암각화 봉사 활동

활동사진



반구대 암각화 봉사 활동



선사 시대 체험 봉사 활동



선사 시대 체험 봉사 활동



반구대 교육 봉사 활동



## 전남대학교-홍익전대: 전남대를 널리 이롭게 하자



저희는 전남대학교중앙동아리로서 1967년도에 설립한 KUSA (Korea Unesco Student Association) 입니다. 저희는 SDG의 의제중 하나인 '평화 및 정의실현'이 가장 사람들에게 필요하지만 가장 멀고 와닿지 않는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제의 실현을 위해서 가장 먼저 앞으로의 세상을 이끌어갈 대학생들, 더 나아가 청년들의 평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실현의지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심어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내에서부터 이러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임원진					
직책	이름	학과	직책	이름	학과
팀장	김태웅	전자정보통신 공학과	부팀장	김미리	생활환경 복지학과
부팀장	최가인	수학과	부팀장	김현준	윤리교육과
회원					
번호	이름	학과	번호	이름	학과
5	박은철	전자정보통신 공학과	7	정상준	고분자융합소재 공학부
6	이주한	화학공학부			

### 활동분야



### 결과보고서

저희 프로젝트명은 '홍익전대-전남대를 널리 이롭게 하라'입니다. 이 주제로 평화활동을 진행해보려고 하니, 주제가 다소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를 잡기 위해 회의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를 완전히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평화의 씨앗이 될 수 있을까?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왜 평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어려울까? 등등을 생각해보았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은 '모두가 평화를 좋아하지만 그것을 이루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 평화를 외치는 사람은 적기 때문이다'였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를 맞본 적도 없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것에 투자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와 행복의 관계성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또 평화가 정의와 무슨 관계성이 있는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한 학생들은 많진 않았지만 마음속에 평화에 대한 강렬한 소망과 의지가 일어난 시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평화가 추상적이고 보이지 않는 단어지만 얼마나 중요하고 꼭 이루어야만 하는 것인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런 강의나 컨퍼런스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이런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의 때 함께해준 '색다른'이라는 동아리와 모여서 단합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단합을 통해 앞으로도 정의나 평화에 관련된 활동을 꾸준히 같이 해나가기로 다짐하였습니다.

많은 회의 끝에 '홍익 전대 컨퍼런스'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여러 동아리가 참여하여 '전남대에서 평화를 이루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에 대한 인문적, 정치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많은 사람을 새로 만날 수 있는 기회였고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문적 사고와 견문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평화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활동사진



6월 3일 '홍익전대-평화와 정의실현' 인문학 강연회 전 공연사진



6월 3일 '홍익전대-평화와 정의실현' 인문학 강연회 (인문대소강당)



8월 15일 전남대KUSA 단합대회 (효동초교)



8월 23일 홍익 전대 컨퍼런스 (와우 전남대점)



8월 23일 홍익 전대 컨퍼런스 (와우 전남대점)



활동분야



결과보고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외국인들과 함께 떠나려던 유네스코 문화재 탐방은 외국인 섭외의 불발로 한양대 에리카 쿠사만이 SDGs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7월 6일, 21일, 8월 4일 임원단 회의를 진행하였고 8월 14일 프로젝트를 종묘에서 진행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외국인들에게 유네스코 문화재를 설명하게 된다면 또한 한국의 문화를 설명을 하게 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먼저 알기 위해 프로그램을 대폭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계절밥상”에서 다 같이 한식을 먹고 종묘에서 가이드의 설명을 자세히 들으면서 종묘의 역사학적 문화적 가치를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문화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연극의 고장 대학로에서 연극을 보며 우리나라의 옛 문화와 현대문화 모두 포괄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원단으로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힘든 점은 있었지만 함께 활동하면서 서로 더 친해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잘 나오지 않았던 동아리원도 보게 되어서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방학동안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SDGs 목표를 탐구하러 가면서도 재미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앞과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지원금으로 더 나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보고서 쓰는 것만 하면 더 좋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장 본인 뿐만 아니라 활동에 참가했던 그리고 개인 스케줄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모든 학우들이 SDGs 프로젝트에 대해 아주 긍정적이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의 목표인 SDGs에 대한 내용입니다. 활동지원금이 가장 메리트 있게 다가온 것을 사실이나 이 활동으로 인해 얻은 것은 궁극적으로 SDGs라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성찰이었습니다. 저희는 건강한 환

임원진

직책	이름 (기수)	학과	직책	이름(기수)	학과
회장	한지수(54)	영미언어문화학과	총무	지선혁(54)	로봇공학과
홍보	김윤지(54)	일본언어문화학과	회우	설지연(54)	영미언어문화학과
부회장	김치훈(54)	국방정보공학과	서기	박주희(54)	일본언어문화학과
학술	이지훈(54)	건설환경공학과			

회원

번호	이름(기수)	학과	번호	이름(기수)	학과
8	김동진(54)	광고홍보학과	11	이동근(55)	건축공학과
9	김한수(55)	문화인류학과	12	박종원(55)	전자공학부
10	김형준(55)	기계공학과	13	신정흠(55)	화학분자공학과

50기 김준성, 51기 김태윤, 55기 정제혁, 55기 전재현은 6.30일 이후 참여 의사를 밝혀 활동인증서가 필요 없는 학우입니다. 총 17명 활동하였습니다.

경 조성, 교육의 질 향상, 평화 및 정의 실현,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라는 4가지 목표를 정해 이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옛날의 것과 현재의 것을 교차 경험하여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고유의 의식의 흐름을 정립하고 옛것을 더 잘 경험할 수 있게 말 그대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이러한 새물결 운동이 전파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종묘를 방문한 것은 종묘가 유네스코 문화재일 뿐만 아니라, 서울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문화재인 조선 궁궐과 더불어 종묘의 역사적 가치를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이드의 자세한 설명으로 끝나고 종묘에 대한 퀴즈를 내도 모두 다 정답을 외칠 정도로 교육이 잘 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질 향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평화 및 정의 실현은 말은 거창하나 평화라는 것이 비단 남북통일에 관한 것은 아니기에 저희 동아리는 평화와 정의에 대한 정의를 포괄적으로 보고 동아리원끼리 함께 활동하면서 친목을 다지는 것 또한 평화 및 정의 실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과 같이 평소에 활동을 안했던 학우들도 이번 활동에 참가하여 서로 친해지며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인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과 함께 활동하며 글로벌 파트너십, 즉 다양한 인종이 함께 활동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결국 이루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의 유산과 현대 한국인들이 지켜 나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잘 학습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후에 외국인들과 교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4가지 목표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잘 완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고 보람 있는 부분도 있는 활동을 하게 되어 다시 한번 SDGs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활동사진



12시 안국역 집합



계절밥상 인사동점



종묘에서 현수막들고.. 입장전



종묘에서 정전 가는 길 (feat. 비)



종묘 안에서 다 같이 설정 샷 (중간 길은 신도라 밟지 않으려고 노력함)



대학로 연극 즐겨주는 이야기 관람 후 단체 샷(몇 명은 화장실..)



## 2차 활동보고서 (9월~11월)

- 경기대학교 · 72
- 세종대학교 · 76
- 순천향대학교 · 82
- 전남대학교 · 90

## 경기대학교-평화와 안보란 무엇인가?



### 활동분야



### 결과보고서

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 유네스코 학생회입니다. 저희 경기대학교 유네스코 학생회에서는 2017년도 SDGs 프로젝트를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진행하였습니다. 2학기 프로젝트는 SDGs 16번 평화 및 정의 항목으로 선정했으며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평화 안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정해 토크콘서트를 기획하였습니다. 이 토크콘서트는 국제 개발 협력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인사들을 모셔 관련 지식과 함께 현장감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 듣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행사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국제무대에서 다방면 활약할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주제인 평화와 안보는 북한의 핵개발과 무력 도발로 인한 한반도의 평화 위협,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는 테러의 위협 등 현재 국내외 평화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생각하게 된 주제입니다. 경기대학교 토크콘서트는 이러한 배경으로 추진되었으며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연사 분들을 섭외하였습니다. 토크콘서트는 총 3부로 진행되기 때문에 세 분의 연사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북한 인권단체에서 교육팀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필주 연사님이 1부 강연을 맡아주셨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출신이신 김필주 연사님께서서는 북한의 현재 실상에 대해 경험에 기반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대북관을 갖고 통일 사업을 이뤄 나가야 하는지에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연사분은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청년위원회 들꽃 위원장 박아람 연사님이셨습니다. 현재 북한대학원에서 공부하고 계시며 저희 경기대학교 지회 선배분이기도 하신 분입니다. 앞선 연사분께서 북한의 실상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강연을 하셨다면 2부 강연에서는 평화와 통일에 대해 우리 청년들이 어떤 것을 알고 역할을 해야 하는

#### 임원진

직책	이름	학과	직책	이름	학과
팀장	김정민	사학과	부팀장	류승연	문헌정보학과

#### 회원

번호	이름	학과	번호	이름	학과
3	강주은	사학과	11	박윤서	경제학과
4	강지영	법학과	12	성지혜	무역학과
5	권희성	응용정보통계학과	13	양나래	사학과
6	김가희	경제학과	14	유미연	사학과
7	김유빈	사학과	15	윤서현	무역학과
8	김민기	전자물리학과	16	이예빈	일어일문학과
9	김현지	국제관계학과	17	이혜지	사학과
10	방선진	국제관계학과	18	정진우	국제관계학과

## 활동사진

지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부는 육군 정훈장교로서 평화, 안보를 지키는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김규완 연사님이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정훈교육 과정과 중국 등 다른 주변 국가의 정훈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셔서 정훈교육 및 안보 의식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연사분들과 함께한 토크콘서트 진행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대 지회 학우들이 이번 행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었습니다. 지난 9월 저희 지회에서는 평화와 안보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해 지회원들과 평화, 안보에 대해 공부하고 11월 토크콘서트에 대해서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월 캠페인은 긴한 촉박 등으로 이번 프로젝트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으나 저희 지회의 11월 토크콘서트는 9월 평화캠페인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 행사였습니다. 본격적인 토크콘서트 준비를 위해 저희는 역할을 분배하여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제작 및 부착, 참가자를 위한 간식, 상품 구매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장소의 경우 경기대학교 제2공학관 세미나실을 대관했습니다. 당일 현장에서는 참가자들을 위해 간식과 기념품으로 노트를 구매해 전달했으며 추가적으로 당일 세미나실에 난방 지원이 안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핫팩을 구매해 참가자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경기대학교 지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행사로 평화와 안보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부분은 연사 섭외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촉박한 일정과 기관들의 사정 여부가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학우들과 함께하지 못한 점이 무척 아쉬웠습니다. 다음번 행사에서는 일정 조율에 힘을 쓰고 행사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경기대학교 토크콘서트 시작



1부 김필주 연사님 강연



2부 박아람 연사님 강연



3부 김규완 연사님 강연



경청하는 경기대학교 지회원들



토크콘서트 종료 후 단체 사진



활동분야



결과보고서

**활동 목적 및 세부내용 :** 저희 세종 KUSA에서는 문해율이 9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에서 순우리말에 대해 너무나도 관심이 없고 잘 알지 못하는 현실 상황에 착안하여, 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우선적으로 교내의 내국인 학우 및 외국인 학우들에게 알리고자 "Design in KUSA"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 계획과는 목적과 진행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저희가 준비한 순 우리말의 종류를 보여드리고 하나하나의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물론 외국인 분들에게도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 무지 에코백 안에 아크릴 물감이나 다른 염료가 뒷면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PVC 판을 넣어드립니다. 그 후에, 저희가 준비해온 레이저로 순 우리말을 깎아서 만든 아크릴 판을 참여자가 원하는 자리에 두게 한 뒤, 종이테이프로 원하는 위치에 고정해줍니다. 준비 작업이 끝이 나면, 정육면체로 잘라놓은 스펀지에 검은색 아크릴 물감(물을 섞으면 번질 수 있어 원액을 사용했습니다.)을 묻혀 가볍게 두드리며 원하는 순 우리말을 에코백에 프린팅 할수있도록 합니다. 물감이 다 마르는 동안(4~5분) 준비한 다양한 색의 섬유펜을 이용하여 세상에 하나뿐인 자신만의 에코백을 꾸미도록 도와줍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의 문해율과 순우리말의 아름다움, 그리고 이러한 아름다운 순 우리말을 내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더 널리 알고 싶다는 우리의 취지를 언급하며 서로의 생각을 교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성과 :** 이러한 참여형 사업이 교내의 학우들로 하여금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고 생각하며, 많은 분들이 페0스북이나 인0타그램 같은 SNS 계정도 올려주시는 등 호감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에코백을 만드는 동안 순 우리말의 뜻을 곱씹는 분도 계셨고, 자신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이나 부모님, 친구에게

임원진					
직책	이름	학과	직책	이름	학과
대표	임하진	광전자공학과	부대표	진선일	기계공학과
회원					
번호	이름	학과	번호	이름	학과
3	김호범	항공우주 시스템공학과	7	정승훈	국방시스템공학과
4	최환석	건설환경공학과	8	조예지	건축과
5	황성재	전자공학과	9	이예빈	항공우주공학과
6	이장원	전자정보통신공학부	10	김효주	항공우주공학과

선물하기 위해 순 우리말의 의미를 신중히 살펴가며 외워가는 분도 많았습니다. 또한, 참여하는 사람의 70% 이상이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학우들이었다는 것에 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외국인에게도 나쁘지 않게 어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KUSA가 어떤 동아리이며, SDGs 사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관심있게 물어보시는 학우분들 및 학교 내부인이 아닌 외부인분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동아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각인시키고 동아리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입장의 변화를 바꿀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려웠던 점 :** 우선, 가장 어려웠던 것은 장소섭외 및 물품 대여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는 독섬유원지나 어린이대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둘 모두 담당자와의 통화를 진행하는 데만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으며, 장소대관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 매우 불친절하여 장소대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후,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외부 장소대관은 참여하는 분들이나 행사를 진행하는 저희 모두에게 너무 가혹할 것 같아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했지만, 모두 가격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부르는 바람에 학교 학생지원처와의 합의 하에 교내의 공개토관 로비에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교내에서 행사가 있어 교내 물품을 빌릴 수 없는 관계로 책상 및 의자와 같은 물품을 교외에서 따로 구비해와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어려웠던 점은 갑작스레 교내에서 하게 된 행사라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며, 그로 인해 내국인 학우들에게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어필할 기회가 없어 관심을 끌기 힘들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사업을 시작했지만, 학우들이 제대로 알고 찾아온 것은 오후 2시쯤 점심식사시간 전후부터였습니다. 또한, 건물 로비에서 하는 터라 건물의 냉기 때문에 팀원들이 추위에 고생을 하였고, 주말이 아닌 평일에 교내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다보니,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게 하려면 쉬는 시간 또는 공강시간을 노려야 하는 탓에 수업과 맞물려 참가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학우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팀원들의 평균 학년이 높은 관계로 많은 시간을 내지 못해 단 하루에 모든 행사일정을 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 중 하나였습니다.

**참가 소감 :** 어려웠던 점을 적다보니 저희 팀이 어렵고, 고생만 하고, 힘들었다고만 느껴질 것 같아 살짝 걱정이기는 하지만, 앞서 나열한 어려웠던 점들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보람과 뿌듯함이 있었다고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는 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목적이나 내용을 몇 번이고 수정하면서 며칠에 걸쳐 새벽에도 모여 여러명이서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어

떻게 하면 조금 더 취지에 맞고, 마냥 행사 하나가 아닌 새로 들어온 신입생들이나 기존 회원들에게도 동아리 활동에는 이런 식으로 스스로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의미있는 활동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자체가 매우 의미있고 두 번 없을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갑작스럽게 학교내부에서 하게 되었던 데다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초반에 찾아오는 인원이 매우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의 취지와 활동내용을 들어본 초면의 학우 몇 분이 참여 후 로비에서 홍보활동을 자발적으로 해주시고, 다른 학우의 사업참여에도 동아리원들처럼 안내를 자처하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내국인보다 외국인 학우들이 월등한 비율로 많이 찾아주셨는데, 중국인, 일본인, 아랍인, 파키스탄인, 미국인, 몽골인 등 여러 국적의 학우 분들이 찾아와 순 우리말의 뜻에 대해 알고싶어하고 사업에 참여하려는 열정을 보여서 매우 뿌듯했습니다. 또한,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공강시간이나 쉬는 시간마다 행사진행을 도와주려고 짬짬히 참여한 동아리원들을 보며 우리들 사이의 유대감과 동아리에 대한 동아리원들의 애착이 강하다는 것을 느껴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만, 처음 참가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 다던 동아리 신입생들이 그 누구보다 열심히 도와주고, 공강시간에 항상 사업진행에 참여했지만 초반에 명단에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 활동증명서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고마우면서도 많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동아리 내의 끈끈한 유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외국인 내국인 할 것 없이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주실 때마다 뿌듯한 마음이 들었으며, 대학생 활에 있어서 잊지 못할 하나의 추억으로 오래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활동사진



에코백 만들기 참여과정 1



에코백 만들기 참여과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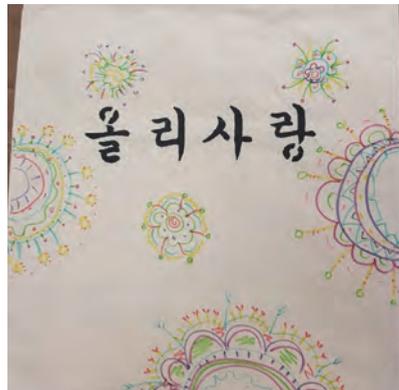
에코백 만들기 참여과정 3



에코백 만들기 참여과정 4



에코백 만들기 참여과정 5



에코백 만들기 참여과정 6



외국인 친구들의 참여



작업을 도와주면서 설명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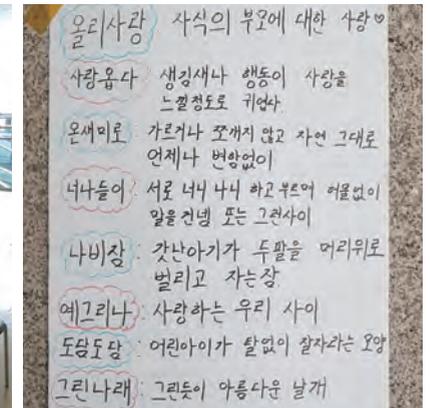
인증 샷 찍는 사람



동아리 홍보전단



엑스배너 용 SDGs 현수막



순우리말 의미



활동분야



결과보고서

SDGs의 17가지 목표 중 3번과 14번을 선택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해양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을 활동 계획으로 세웠다. 부스를 운영하며 사람들이 SDGs에 관심을 가지고 목표를 이루게 하는 활동을 스스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 활동을 시작하였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 팀원들끼리 모여 회의하는 시간을 가졌다.(2017. 11. 09) 회의의 내용은 부스를 운영하는 데 선택한 3번과 14번 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전달할 수 있고 어떤 활동을 해야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였다. 첫 번째로 할 부스에서 3번 목표인 '건강한 삶 영위'는 건강한 삶을 사는 것 중 하나가 성생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건강한 성생활을 한다는 것을 주제로 잡았다. 그래서 부스를 운영할 때 퀴즈와 여성과 남성의 신체 구조를 맞춰보는 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후에 각 팀원마다 2문제씩 성에 관한 퀴즈를 찾아 합쳐 문제를 만들기로 하였는데, 신체구조 맞추기는 단답형으로 직접 적기보다는 회전물을 높이기 위해 그림에 올바른 명칭을 맞추는 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첫 번째 활동은 11월 14일, 15일 이틀에 걸쳐 학교에서 진행된 SR나눔페스티벌에 참가하는 것이었다. 부스를 진행하면서 순천향대 관계자뿐만 아니라 외부의 손님들에게도 SDGs 프로젝트를 홍보할 수 있었다.

임원진					
직책	이름	학과	직책	이름	학과
회장	강문홍	환경보건학과	부회장	이소현	관광경영학과
회원					
번호	이름	학과	번호	이름	학과
3	김세린	관광경영학과	7	전소윤	사물인터넷학과
4	김남호	사물인터넷학과	8	김유진	사물인터넷학과
5	김승환	컴퓨터 소프트웨어공학과	9	한예솔	사물인터넷학과
6	조정윤	관광경영	10	강동우	법학과

11월 14일 부스는 퀴즈를 주로 진행하였는데, 참여자들 대부분이 처음 퀴즈를 받아보는 것이었고 직접적인 내용들을 포함한 문제들에 당황하고 민망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프로젝트 목적을 설명하니 이해하고 응원해주었다. 아마 당황했던 이유는 평소에 숨기듯이 말하던 단어들을 사용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11월 15일에는 남녀의 신체 구조를 맞춰보는 활동을 하였다.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몸, 신체를 잘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부스를 진행하였다. 의외로 잘 못 맞추는 사람들이 많고 헛갈려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요즘 우리나라도 성에 대해 많이 개방적이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끄러운 것이라 생각하고 숨기는 경향이 있다. 그런 분위기로 청소년기에 실질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닌 교과서적으로 단면적인 정보만 받아들이며 정작 정말 필요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잘못된 지식들을 가지고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의 연장선으로 성인이 된 이후로도 잘못된 정보로 이성을 오해하며 살아가기도 한다. 우리가 진행한 이번 부스 활동에 부족한 부분, 어설퍼던 부분도 많았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의도한 목적 그대로 전달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부스에 참여하여 퀴즈를 풀었던 사람, 이성의 신체를 맞춰보았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 몰랐던 내용들을 알아가며 서로를 이해하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두 번째 활동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2017. 11. 21)

첫 번째 활동과 같이 부스 운영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해야 사람들의 참여도를 높일지 의견을 내고 어떻게 SDGs 프로젝트를 홍보할지 생각하였다. 두 번째 부스는 14번 목표인 '해양 생태계 보호' 홍보를 목적으로 했으므로, 부스 운영을 어떻게 해야 대중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회의 결과 해양 생태계를 위해 사람들에게 직접 해양 오염물을 제거하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그들에게 해양이 깨끗해야 함을 알려주기 위해 모형으로 바다를 만들어 오염된 해양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진행하기로 하고, 추첨을 통해 수생식물인 마리모를 추첨을 통해 나눠주기로 했다. 마리모라는 식물이 비록 해양에 사는 생물은 아니지만, 깨끗한 수질에서 서식한다는 특징이 있어, 사람들이 그 생물을 위해 항상 깨끗한 물을 유지시켜주며 깨끗한 물, 깨끗한 해양이 중요함을 깨닫길 바라는 의미로 추첨을 통해 나누어줄 상품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해양의 오염물로 인해 바다가 서식지인 생물들의 외형이 바뀌고, 쓰레기를 음식으로 착각해 먹고 죽는 경우 등이 있으며, 이렇게 서서히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해양을 보호하며 지켜야 한다는 것을 부스에 참여해준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하였다.

처음 계획한 부스 운영 날짜는 교내 사람들의 유동성이 가장 많은 것 같은 요일이 목요일이라고 예상하고 11월 23일로 잡았다. 하지만 당일 오전시간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려 계획이 무산되고 다음날로 미루게 되었다.

11월 24일 금요일에 두 번째 부스를 운영하였다. 처음 계획은 건물 밖에서 진행하기로 했지만, 날씨가 너무 춥고 눈도 내려 건물 밖에서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학생회관 1층으로 부스를 옮겼다. 초반에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나가는 사람들이 적어졌다. 열심히 참여를 유도해 예상한 인원수를 채울 수 있었다. 처음에는 잘 몰라서 어색해하던 사람들이 많지만 금세 적응하고 흥미롭게 들어주었다. 처음 부스를 체험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나중에 주변 지인들을 데리고 와 홍보해주는 모습을 보고 부스 활동이 그래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번 SDGs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어려운 점이 많았다. 회의를 해야 하는데 예상과는 달리 팀원들의 시간이 잘 맞지 않아 팀의 과반수가 모일 수 있는 날을 잡기 어려웠다. 어떤 팀원은 참여율이 너무 낮아 이대로 프로젝트 명단에서 이름을 빼야 하는 건지 걱정도 했지만, 활동 막바지에 회의나 부스, 부스 체험 물품을 만드는 시간에 많이 참여해주어서 다행이도 명단에서 제외시키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에서 모든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해준 팀원도 있고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팀원도 있었기 때문에 모든 팀원들의 참여율이 비슷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SDGs 프로젝트는 나도 평소 신경쓰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프로젝트 신청서를 작성하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개선되어야 하고 평소에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생각에 프로젝트를 신청하게 되었다. 물론 이번 우리의 활동이 교내의 모든 학생들에게 SDGs 프로젝트를 알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부스에 들러 참여해주었던 사람들만이라도 이런 목표를 가지

고 활동하고 있는 유네스코에 대해 알고 SDGs 프로젝트의 내용을 가끔씩 상기할 수 있을 것이며, 어딘가에서는 그런 활동을 하며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스스로도 미래를 위한 작은 실천을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우리 순쿠는 이번 SDGs 프로젝트를 통해 14가지의 중 2가지 목표에 대해서만 활동했지만 후에 다른 기회라도 SDGs의 전체 14가지 목표를 교내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실천을 유도해내는 기회가 있으면 한다.

### 팀원 후기

| **조정윤, 관광경영학과:** 학교를 다니면서 제일 알찬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한 것이 있다면 바로 쿠사활동이었다! 회장님과 임원들이 잘 이끌어주어서 보다 즐겁고 알찬 부스활동이 이어질 수 있었고, 같이 활동하는 내내 즐거웠고 배울 수 있는 점들이 많았다. 쿠사 사랑해여~

| **이소현, 관광경영학과:** SDGs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동아리원들끼리 친목을 다질 수 있어서 좋았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자세히 알고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다.

| **김유진, 사물인터넷학과:**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해양생태계에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사나 부스운영을 할 때 무엇을 어떻게 전할지만 고려했었는데, 부스운영에 필요한 물품까지 직접 제작하면서 참여자에 입장에서 참여율 높이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 **김세린, 관광경영학과:** 우선 건강한 성생활 캠페인을 하면서 성이란 것은 여성 또는 남성의 일생을 차지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거나 알려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부끄러운 것, 말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치부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활동을 통해서 너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꼭 필요한 성지식을 알려줄 수 있어서 매우 좋았고 여성도 남성의 생식기관, 남성도 여성의 생식기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해양생태계 보호 부스를 진행할 때 춥고 눈도 많이 와서 많이 걱정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셔서 매우 행복했고 경품이 있는 한 사람들은 부스 참여에 적극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 **전소윤, 사물인터넷학과:** SDGs 프로젝트를 동아리원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뜻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 **김남호, 사물인터넷학과:** SDGs 관련 활동을 위해 동아리원들과 시간을 맞추고 회의를 하고 부스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보다 더 뿌듯했다.

| **김승환, 컴퓨터 소프트웨어공학과:** 이번 활동을 통해서 해양생태계 보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 **강동우, 법학과:** 봉사동아리라는 것을 처음 해보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양한 주제로 활동을 하며 좋은 추억으로 남았다.

| **한예솔, 사물인터넷학과:** 1학기보다 제게 더 밀접하고 의미있는 주제라 뜻 깊은 활동이었습니다. 활동시간이 수업과 겹쳐 준비위주로 활동했던 점이 아쉽고, 다음에도 이처럼 무언가에 대한 가치를 알 수 있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활동사진



회의 2017. 11. 09



회의 2017. 11. 09



해양 체험 만들기



해양 부스 11. 24.



웰빙 부스 홍보물 만들기



웰빙 부스 11. 14~15.



해양 부스 11. 24.



웰빙 부스 11. 14~15.



해양 체험, 홍보물 만들기



활동분야



결과보고서

‘지화자 교육’ 즉 깨닫고 화합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SDGs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요즘 공교육에서 제대로 배울 수 없는 ‘사회성’과 ‘인성’ 즉 참교육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여 마음의 병이 많은 청년들에게 체험활동을 기획하여 근본에 대한 고찰, 자신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 내려는 교육을 연구하고 제공하려고 하였습니다.

일단 저희는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 기획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깨달음을 주는 교육을 기획하는 것은 정말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체험을 통해 그 깨달음이 오래도록 남게 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관련 책도 함께 읽어보고, 체험프로그램 관련 논문이나 관련 서적을 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체험으로 ‘말’에 관한 주제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말을 통해 얼마나 상처를 받으며, 상처를 주는가에 대한 체험이었습니다. 내가 평소에 생각 없이 하는 나쁜 말을 긴 나무꼬지 적어보고 그 나무꼬지를 나중에 스티로폼 인형에 꽂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인형을 한 꺼풀 벗겨보면 찢린만큼 피가 나오는 체험이었습니다. 체험자들은 자기가 한말들이 남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오래도록 충격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사람을 많은 사람 앞에 두고 많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을 돌아가면서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동아리원이 앞에 나오게 할 수 있도록 하려다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말을 하다 보니 자존감도 높아지고, 사람의 장점을 보게 되면서 체험 전보다 심리적으로 안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체험을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인성교육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저희 전남대 쿠사가 되겠습니다.

임원진					
직책	이름	학과	직책	이름	학과
팀장	김태웅	전자정보통신 공학과	부팀장	김미리	생활환경 복지학과
부팀장	최가인	수학과	부팀장	김현준	윤리교육과
회원					
번호	이름	학과	번호	이름	학과
5	박은철	전자정보통신 공학과	7	정상준	고분자융합소재 공학부
6	이주한	화학공학부			

활동사진



쿠사 알림아리 행사 활동사진



쿠사 워크숍 -인성체험 프로그램 진행 활동사진(광주 비엔날레 어린이 공원)



쿠사 워크숍 -인성체험 프로그램 진행 활동사진



지화자 컨퍼런스 진행 사진



지화자 - 인성체험 프로그램 조별회의 및 발표

# 4

## 2017 유네스코학생회

# 연간보고서

가천대학교	96
강릉원주대학교	104
건국대학교	110
경기대학교	116
광주교육대학교	120
동국대학교	122
동덕여자대학교	128
명지대학교	132
삼육대학교	136
서울여자대학교	144
숙명여자대학교	150
순천향대학교	154
송실대학교	160
연세대학교	164
울산대학교	170
중앙대학교	176
한국외국어대학교	180
한양대학교 ERICA	186
한양대학교	190

# 가천대학교



임원진					
직책	이름	학과	직책	이름	학과
회장	노원준	경영학트랙	총무	이호민	도시계획학과
부회장	신윤철	컴퓨터공학과	연합부장	노수성	전기공학과
회원					
번호	이름	학과	번호	이름	학과
5	고혜린	유아교육학과	32	강성욱	경영학트랙
6	임민영	식품영양학과	33	김대원	경영학트랙
7	조수현	도시계획학과	34	임동현	경영학트랙
8	윤식	글로벌경제학과	35	김예원	경영학트랙

9	정찬영	경영학트랙	36	김태하	경영학트랙
10	홍근원	경영학트랙	37	이영웅	경영학트랙
11	문창식	토목환경공학과	38	이치현	경영학트랙
12	김윤태	설비소방학과	39	하지호	경영학트랙
13	강지원	식품생물공학과	40	최예지	헬스케어경영학과
14	이소현	경영학트랙	41	정유경	헬스케어경영학과
15	임주원	기계공학과	42	김재환	헬스케어경영학과
16	위성혁	기계공학과	43	정다원	미술디자인학부
17	박준범	기계공학과	44	김지선	사회복지학과
18	아종범	기계공학과	45	문정아	사회복지학과
19	김성욱	기계공학과	46	임혜정	글로벌경제학과
20	김진형	에너지IT학과	47	김윤섭	글로벌경제학과
21	김성언	행정학과	48	엄태환	글로벌경제학과
22	전혜민	행정학과	49	이가은	관광경영학과
23	김근희	행정학과	50	박혜원	관광경영학과
24	조은주	행정학과	51	이정원	관광경영학과
25	이민재	경영학트랙	52	박예찬	관광경영학과
26	안정인	경영학트랙	53	김영석	설비소방학과
27	서진우	경영학트랙	54	홍예린	금융수학과
28	주선호	경영학트랙	55	박기양	응용통계학과
29	이한슬	경영학트랙	56	김혜진	응용통계학과
30	이지연	경영학트랙	57	강민지	응용통계학과
31	조하영	경영학트랙	총 61명		

## 활동 보고

### 1. 나의 이야기

일시: 매주 목요일 5시 30분

장소: 가천대학교 학생회관 109호

내용: 나의 이야기

참여인원: 노원준 외 모든 가천대 쿠사회원

세부내용: 저희 가천대학교 쿠사는 봉사뿐만이 아니라 매주 목요일마다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나의 이야기'란 나에 대한 주제로 동아리원들의 평소 학업, 취업, 인간관계에 관한 고민들을 서로 공유하고 다독겨려주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줍니다. 저는 이 활동이 봉사 못지않게 유네스코의 정신과 어울린다 생각합니다. 또, 1년 동안 시험기간과 방학 이외엔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진행되는 활동이기에 저희 쿠사의 기동과 같은 주요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복지관 도시락배달봉사

일시: 2017년 4월 29일

장소: 수정구 복지관

내용: 복지관에서 나눠주는 어르신들의 도시락을 배달

참여인원: 노수성 외 5명

세부내용: 9시부터 12시 반까지 진행되는 봉사였다. 수정구복지관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 찾기 힘들었다. 2명씩 조를 이루어 복지관에서 나눠준 도시락을 배달하였다. 원래 복지관에 들리셔서 가져가는 행사였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복지관까지 들르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배달해 드렸다. 도시락을 드릴 때마다 매우 크게 감사하시고 심지어 옆드려 인사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며 약간의 부담감을 느꼈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다.

### 3. 서울동화 축제

일시: 2017년 5월 6일

장소: 어린이대공원

내용: 서울동화축제 운영지원봉사

참여인원: 이효민 외 12명

세부내용: 13명의 봉사지원자들을 3개의 조로 나누어 10:00 ~ 12:20 1조, 12:20 ~ 2:40 2조, 2:40 ~ 5:00 3조로 봉사활동을 하였다. 활동 내용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대공원에 방문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전시된 김

동주 시인의 시와 시집원본을 감상하게 하고 아이들에게 자신만의 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기념품으로 동화책을 선물하는 것이었다.

### 4. 가천대 쿠사 단체엠티

일시: 2017년 5월 13일

장소: 대성리

내용: 단체엠티

참여인원: 이효민 외 26명

세부내용: 11시에 진행요원이 장보기 팀과 고기 팀으로 나눠 각자 필요한 물건을 구매했다. 1시에 잠실역 1번 출구에서 엠티참가인원이 모여 대성리로 출발했다. 조를 짜서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했고 피구 등 많은 게임을 했다. 저녁으로 고기를 구워 먹은 후 산책을 하는 등 자유 시간을 가졌다. 다음날 아침 일찍 펜션을 정리하고 단체사진을 찍는 것으로 엠티를 마무리했다. 서로 잘 알지 못했던 동아리 원들을 알게 되었고 어색했던 사람과는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 5. 알콩달콩세대이음 가족축제

일시: 2017년 5월 20일

장소: 가락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

내용: 가족축제 진행봉사

참여인원: 이효민 외 9명

세부내용: 가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한 가족축제를 진행하였다. 활동내용에는 음료 나르기, 팔찌 제작하기, 전통놀이 체험시켜주기, 봉숭아물들이기,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식물심기, 가족단위 사진 찍어주기, 방향제 만들기, 신발 정리 등을 하였다. 또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축제 만족도 조사와 뒷정리를 한 뒤 봉사활동을 마무리하였다.

### 6. 생생(生生) 라이프

일시: 2017년 4월 14일 ~

장소: 하대원시장 근교텃밭

내용: 생생라이프 텃밭봉사

참여인원: 고혜린 외 11명

세부내용: 격주로 월 2회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봉사이다. 독거노인들과 학생들이 몇 개의 조로 나뉘어 각조에 해당하는 텃밭을 가꾸는 활동을 진행한다.

1회기 때는 조를 구성하고 조이름을 만들며 서로 얼굴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고 2회기부터 본격적인 텃밭봉사가 시작되었다. 고구마 밭을 갈고 고랑을 만들고 고구마 순을 심고, 상추를 심는 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6월 9일 금요일 봉사에서는 우리 쌀 새참 비빔밥파티에 참여하여 비빔밥을 먹고 천연염색을 하는 기회를 가졌다. 초반에는 어르신 분들의 고집 때문에 조금 고생을 했지만 회기가 진행되면서 어르신들이 봉사자인 학생들을 예뻐해 주시는 게 느껴져서 봉사에 참여하는 게 즐겁다.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살갑게 다가와주는 것을 좋아하시는 게 그 분들의 외로움을 나타내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 7. 성동구 청소년 대축제 난장판

일시: 2017년 10월 28일

장소: 왕십리 광장

내용: 청소년 대축제 도움

참가인원: 고혜린 외 12명

상세내용: 왕십리역 앞 왕십리 광장에서 13시부터 18시까지 5시간 동안 진행되는 '청소년 축제 난장판'에 참여했습니다. 왕십리 광장에 13시에 왕십리 광장에 만나서 운영부스로 자원봉사자 등록을 하러 가서 음식판매 부스와 재활용품을 응용한 만들기 부스로 나뉘어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식판매 부스에서는 닭강정과 소세지, 음료수 등을 축제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무료 나눔을 해주는 일을 하였고, 재활용품을 응용한 만들기 부스에서는 스텐실 기법으로 빈 플라스틱 통을 이용한 소품함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음식판매 봉사활동을 통해 질서유지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고 재활용품 재사용을 통해 재활용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봉사활동은 다소 어색하던 동아리원들 간의 친목을 다질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 8. 사랑의 김장 나눔 릴레이

일시: 2017년 11월 13일

장소: 성남시청 야외광장

내용: 김장 버무리기 및 배달

참여인원: 노원준 외 2명

세부내용: 11월 13일 오전 9시에 성남시청에서 모여 1시 30분까지 김장 버무리기가 진행된다. 우리는 김장을 버무리는 일 대신 봉사자 할머니들과 아주머니들이 버무린 김치를 각각 무게를 재서 포장하는 일을 진행했다. 봉사

자는 우리 중원 노인 복지관측 봉사자는 우리 제외 16명 정도였고 김치 버무리는 사람 12명, 우리처럼 포장 일을 하는 사람 4명이었다. 성남 시청광장에서 진행하는 것은 김장 버무리기까지이고 그 이후 1시 30분 이후에는 포장 일을 하던 봉사자들만 모여 중원노인복지관으로 가 김치 배달을 하였다. 날이 추웠기에 쉽지 않은 봉사였지만 김치를 배달해 드렸을 때 거듭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 뿌듯하면서도 독거노인 분들의 좁디 좁은 거주환경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개선해야 될 점은 김치 포장 용기가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져 포장할 때 꽤나 애를 먹었다. 끈이 달린 포장용기였으면 일하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편했을 거라 생각한다. 또 하나 개선할 점은 김치 배달할 때 나눠주는 지도인데 대충 네이버지도로 스크린 샷 해서 인쇄해 준 것이라 주소가 흐릿하게 적혀있는 집이 많았다 나는 그 근방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쉽게 찾았지만 다른 타지에서 와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상당히 곤란했을 것 같다.

활동사진



복지관 도시락배달봉사



서울동화축제



알콩달콩세대이음 가족축제



쿠사 단체엠티



생생(生生) 라이프



성동구 청소년 대축제 난장판



사랑의 김장나눔 릴레이

# 강릉원주대학교



임원진					
직책	이름	학과	직책	이름	학과
회장	이진우	전자공학과	부회장	모준관	토목공학과
홍보부장	최지원	해양식품공학과	기획부장	강현일	해양식품공학과
회원					
번호	이름	학과	번호	이름	학과
5	강태기	관광경영학과	34	박루민	생명화학공학
6	이지윤	해양식품공학과	35	전승훈	식물생명과학
7	김윤하	영어영문학과	36	조세화	수학과
8	손민기	수학과	37	권진영	식품가공유통

9	김민지	식품영양학과	38	정영훈	전자공학과
10	박건웅	도시계획부동산학과	39	유상민	국제통상학과
11	배소연	자치행정학과	40	손종우	토목공학과
12	김혜진	식품영양학과	41	김태형	국제통상학과
13	신형식	환경조경학과	42	이광출	국제통상학과
14	정영훈	전자공학과	43	황현주	식품영양학과
15	정지은	치위생학과	44	김종상	토목공학과
16	김윤지	치위생학과	45	심재관	국제통상학과
17	최수진	수학과	46	양인규	국제통상학과
18	권동관	경영학과	47	김재현	토목공학과
19	모준관	토목공학과	48	최성재	토목공학과
20	서혜진	식품영양학과	49	김현준	토목공학과
21	전철우	토목공학과	50	원혜정	치위생학과
22	심봉섭	토목공학과	51	손진석	수학과
23	권종혁	무역학과	52	최영광	해양생물공학
24	최수빈	관광경영학과	53	김경하	화학신소재
25	김태완	식품가공유통	54	박건형	화학신소재
26	김승민	자치행정학과	55	장소영	해양식품공학
27	박승래	해양생물공학	56	이하영	해양식품공학
28	장성환	전자공학과	57	이혜원	영어영문학과
29	김휘수	식물생명과학	58	김윤하	영어영문학과
30	이지영	식물생명과학	59	이찬희	전자공학과
31	오서연	체육학과	60	김지훈	전자공학과
32	김희성	체육학과	61	김유빈	전자공학과
33	박영준	해양생물공학			

## 활동 보고

강릉원주대 쿠사는 2017년 한해 주체적인 봉사를 하는 것을 회장의 주도 하에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짜서 활동을 했습니다. 2017년 첫 활동은 처음 봉사활동을 하는 회원들도 많고 해서 직접 봉사활동을 기획하지 않고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부스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복지관에서 짜여진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만들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대부분 처음이어서 재미도 느끼고 보람도 느꼈습니다. 봉사활동이 엄청 힘들고 멀리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많이들 느꼈다고 합니다. 2번째 봉사활동은 유네스코학생회 SDGs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직접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활동까지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처음에 회원들이 생각보다 아이디어를 많이 내지 못하고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회원들이 많이 수동적이더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능동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처음에는 제가 많이 아이디어도 내고 홍보도 많이 해서 참여율이 올라가서 2가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성학교(장애인학교) 멘토링 봉사활동입니다. 일반학생들과 달리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족한 친구들을 멘토활동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활동한 회원들이 잘 해줘서 괜찮았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시락 배달이었습니다. 기초수급자인 어르신들에게 쌀과 물을 배달해드렸습니다. 직접 가보니 언덕위에 무너질 듯한 옛날 집에서 살고 계시는 분,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 지병을 앓고 계시는 분 다양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자식의 왕래가 적어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셨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한다지만 학생들이 저희들이 가서 어르신들을 만나서 말주변도 해드리고 좋은 말씀을 듣는 것도 좋다고 느꼈습니다.

세 번째로 5월8일 어버이날에 복지관에 카네이션을 직접 만들고 달아드리 는 활동을 하는 것도 좋다고 의견이 나와서 직접 재료를 사와 만들고 복지관에 방문해서 달아드렸습니다. 생각외로 어르신분들께서는 저희가 손주 같고 자식같다고 하시며 많이들 좋아하셨습니다.

한 해동안 회원들끼리 주체적으로 한 봉사활동은 3번 정도입니다. 하면서 생각보다 참여율이 적고 대부분 누가 만들어준 봉사활동에만 참여하려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 봉사활동도 좋지만 저는 대학생인 만큼 저희가 직접 기획을 하고 능동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참여한 회원들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회의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마침내 봉사활동을 끝내면 성취감과 보람이 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기획해서 봉사한 활동뿐만 아니라 강릉 화재현장 복원활동, 지역아동센터 부스체험활동, 초등학교 멘토링 등등 한 해 동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사진



어울림마당(복지관)



오성학교(장애인학교) 멘토링



성산면 화재현장 복원 봉사활동



한울제(졸업한 선배들과의 MT)



카네이션 제작(어버이날)



도시락배달 봉사활동





## 활동 보고

### 1. 첫 봄 MT

3월과 9월, '새내기 맞이 주간' 동안의 홍보 활동을 통해 쿠사에 새로운 얼굴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입 부원들에게 쿠사란 무엇인지, 어떤 활동을 하는 동아리인지 더 자세히 알려주고 동아리 부원끼리 친목을 더욱 돈독히 다지기 위해 엠티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기획해보는 행사라 긴장되고 조금한 마음이 앞섰지만, 서투른 모습에도 믿고 따라와 주는 신입 부원들 덕분에 무사히 첫 행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무작정 술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팀 별 다양한 종류의 게임을 통해 조원들끼리 좀 더 친해지고 협력할 수 있어 더욱 뜻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재미있었던 게임은 '당당사'라는 게임이었는데, 서로의 특징을 말하고 자리를 바꾸는 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을 통해 계속해서 자리를 바꾸면서, 사람이 많아서, 혹은 낯가림이 심해서, 이야기 하지 못했던 사람들과도 모두 친해질 수 있었고, 서로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더욱 허물없는 친목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 2.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추억이 된 축제 주점

대동제를 맞아 축제 첫 번째 날, 주점 운영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고, 요리를 하고, 손님 응대를 하는 것 까지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었지만 동아리 부원들끼리 서로를 위한 마음으로 협력한 결과 기대했던 것 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음식 메뉴를 정하고 레시피를 서로 공유하고, 또 함께 장보고 요리하는 등 주점을 준비하며 부원들과 보내는 시간이 정말 길었는데, 그 긴 준비 시간 동안 힘들기도 하였지만 서로를 북돋아주며 훨씬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 사정으로 엠티에 오지 못해 많이 친해지지 못했던 동아리 부원들과도 친목을 다질 수 있었고, 일이 힘들었던 만큼 '협력'이 정말 중요했는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 서로를 돕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사실 아무런 대가없이 힘들게 주점을 도와주는 것 대신 축제를 즐기거나 편하게 설 수도 있었겠지만 자발적으로 선뜻 도와주겠다고 나선 많은 동아리 부원들에게 정말 고마웠고, 지금까지 자주 뵈지 못했던 선배님들 역시 바쁜 와중에

#### 임원진

직책	이름	학과	직책	이름	학과
회장	장미현	경영학과	부회장	김소현	응용생물공학과
학술부장	이다란	응용생물공학과	총무	윤근해	경영학과
봉사부장	박지환	기계공학과	홍보부장	황은지	영문학과

#### 회원

번호	이름	학과	번호	이름	학과
6	권혜진	기술경영학과	11	강윤구	영어교육학과
7	김태형	경영학과	12	이상훈	영문학과
8	오승민	경영학과	13	이준학	경영학과
9	임찬혁	행정학과	14	정위대	컴퓨터공학과
10	조준경	응용통계학과			

도 동아리 주점에 많이 들러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침 여섯 시부터 다음 날 아침 네 시까지 쉴 틈이 없었을 정도로 힘들었던 하루였지만 힘든 만큼 가장 추억에 남고, 서로에 대한 끈끈함을 더욱 다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3. 가든파티

학교를 졸업하신 선배님들은 '쿠파'라는 이름으로 자체적인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시고 계십니다. 쿠파 선배님들께서는 임원단 친구들에게 동아리 운영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동아리가 좋은 방향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언제나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이런 쿠파 선배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신입 부원들이 선배님들을 알아 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어 가든파티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자칫 졸업생 선배님들을 만난다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입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었고, 선배님들 역시 각자 일로 정말 바쁘실 텐데도 평일 저녁에 시간을 내 행사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졸업 후에도 동아리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후배들에게 많은 관심을 쏟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도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시는 선배님들의 모습에서 쿠사에 대한 열정과 후배들에 대한 사랑을 엿볼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동아리에 대한 열정을 배우고, 동아리 운영에 있어 개선해야 할 점들을 새겨들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 4. 가을 엠티

2학기 신입 부원들이 들어오게 되고, 처음 만나는 부원들과 좀 더 친해지기 위해 가을 엠티를 다녀왔습니다. 팀별로 이뤄지는 다양한 게임과 행사가 주를 이뤘던 봄 엠티와 다르게 가을 엠티는 여유있게 휴식을 취하는 컨셉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자유롭게 모여 앉아 게임을 하기도 하고, 더운 날씨에 숙소 앞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부원들 의견에 따라 단순히 고기 구워먹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준비하였고, 요리를 처음 해본다면 친구들도 열심히 도와 만든 카레와 김치찌개는 고기보다 훨씬 인기가 좋았습니다. 가장 재밌었던 것은 저녁 식사 후에 뒷정리 내기로 팀을 나눠 족구 게임을 하였던 것인데, 함께 땀 흘리고 운동하면서 기존 부원들과 신입 부원들이 함께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 5. 다양한 봉사활동

공공기관과 함께 하는 사회봉사, 여러 가지 행사 보조 봉사 활동, 서은단지 센터의 장애인 보조 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며 봉사 정신을 기르고 사회를 바라보는 눈을 더욱 키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여름에 있었던 아동 권리 축제 행사 진행 요원 봉사가 가장 뜻 깊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하고 놀아주면서, 몸은 힘들었지만 '봉사'라는 것이 정말 즐겁고 재밌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주에 한번 정기적으로 장애인 복지 센터에 꾸준히 가고 있는데, 장애인 분들의 식사를 돕고 함께 산책 하면서 장애인 분들의 삶을 배우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개개인 혼자였다면, 봉사에 참여하고 꾸준히 활동하는 것이 어려웠을 테지만,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였기 때문에 더욱 즐겁게 봉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6. 55번째 창립제

건국 쿠사의 창립을 축하하고 쿠파 선배님들과 쿠사의 한 해 활동을 뒤돌아보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창립제를 준비하였습니다. 사진전 준비를 위해 한 해 활동사진들을 모아보았는데, 정말 쿠사와 함께 했던 시간이 이렇게나 많았고 올 해 보냈던 시간들 중 쿠사의 자리가 정말 컸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아 인화한 사진들을 부원들과 함께 벽에 붙이고 앨범을 만들면서 한 해의 추억을 되짚어 보았고, 오랜만에 쿠파 선배님들을 뵈고 선배님들과 앞으로 쿠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어 뜻 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각자 쿠사에 대한 추억이 담겨 있는 물건을 뽑기를 통해 서로 나누어 가지고 그 물건에 대한 사연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선배님들이 쿠사 활동을 하시면서 쌓았던 추억, 동아리 부원들 각자의 쿠사에 대한 추억을 함께 나눌 수 있어 좋았습니다.

활동사진



처음으로 다녀왔던 봄 엠티



힘들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축제주점



선배들과 함께 했던 가을파티



즐거웠던 가을 엠티



다양한 봉사활동



한 해의 추억을 되돌아봤던 창립제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활동 보고

경기대학교 KUSA 지회는 2017년 한 해 동안 새로운 신입회원들을 맞아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2017년 지회 내 주요 활동으로는 매주 진행된 세미나, 상, 하반기에 걸쳐 진행된 캠페인, 타 지회와의 답사 등이 있었습니다.

먼저 세미나는 경기대학교 KUSA 지회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으로 국제이슈와 SDGs에 관련된 주제로 진행되며 회원들 간 토의 내지 토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세미나를 살펴보면 SDGs 6번과 관련하여 물과 위생에 관한 세미나가 있었고 현 국제 이슈인 시리아와 로힝야족의 사례로 난민 문제에 관해 세미나를 하고 토의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동물실험, 양성평등과 관련해서도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와 함께 실천적인 활동으로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였는데 1학기에는 물과 위생에 관련 캠페인을 열어 전 세계 식수, 위생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와 이에 대한 모금활동을 교내 학우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학우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고 모금액은 유니세프 프로그램인 생명을 구하는 선물, 가정용 위생키트를 구매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2학기에 1학기과 마찬가지로 캠페인을 진행하였는데 주제는 평화와 세계 평화의 날로 캠페인 시점이 9월 21일 세계 평화의 날과 비슷한 시점이었기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2학기 평화 캠페인은 별도로 모금활동을 하진 않고 평화의 날과 평화의 중요성 등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1학기 캠페인에서도 사용하였지만 뽑기 기계를 이용해 상품을 추첨하는 방법으로 학우들의 많은 관심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경기대학교 지회의 또 다른 중요한 행사는 답사입니다. 1학기 답사지는 서울 몽촌토성으로 다른 KUSA 지회인 서울여대 지회와 함께 갔습니다. 몽촌토성은 백제의 한성 도읍지가 있었던 지역으로 몽촌토성 유적과 한성백제 박물관을 통해 많은 역사적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양 지회 간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학기에도 답사를 진행하였는데 11월 11일 수원화성으로 다녀왔습니다. 2학기 답사의 경우 토크콘 준비 등으로 인한 사정 때문에 타지회와의 연합없이 경기대학교 지회원들끼리 진행하였습니다.

임원진					
직책	이름	학과	직책	이름	학과
팀장	김정민	사학과	부팀장	류승연	문헌정보학과
회원					
번호	이름	학과	번호	이름	학과
3	강주은	사학과	11	박윤서	경제학과
4	강지영	법학과	12	성지혜	무역학과
5	권희성	응용정보통계학과	13	양나래	사학과
6	김가희	경제학과	14	유미연	사학과
7	김유빈	사학과	15	윤서현	무역학과
8	김민기	전자물리학과	16	이예빈	일어일문학과
9	김현지	국제관계학과	17	이혜지	사학과
10	방선진	국제관계학과	18	정진우	국제관계학과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대 KUSA 지회는 여러 활동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지회원들의 수고와 노력이 매우 컸습니다. 아울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주관한 두차례의 프로젝트는 지회 활동에 있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올해 활동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꼽자면 타 지회와의 연합활동 기획 및 참여가 조금 부족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활동이 교내에서 진행된 것이고 KUSA 행사에도 참여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개선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활동사진



1학기 SDGs 세미나



1학기 물절약 캠페인



1학기 연합답사



2학기 개강총회



2학기 평화 캠페인



2학기 수원화성 답사



## 활동 보고

2017년도 광주교대 KUSA는 핵심 모토인 예비교사의 바른 교육가치관 세우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1년 동안 해왔습니다. 교육 이슈에 대한 열띤 토론과 독서 모임, 교육학 흐름 알기, 교육학 영어 원서 해석, 원하는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발표하는 소모임 프로젝트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동아리 구성원들이 교육에 관해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준 것과 토론을 통해 다른 구성원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봄으로써 교육에 관한 식견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교외로 대외활동을 하지 못하고 학교 안에서만 활동을 한 것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학술 위주의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니 동아리 구성원 간의 친목이 부족하여 서로 약간 어색한 관계로 모임을 참가해온 것 또한 개선점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학교 KUSA 동아리와 연계하여 좀 더 다채로운 활동들을 경험해 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 임원진

직책	이름	학과	직책	이름	학과
회장	임희소	교육학과	부회장	김광혁	특수통합교육과

### 회원

번호	이름	학과	번호	이름	학과
3	김원식	교육학과	10	안현섭	사회교육과
4	문수환	교육학과	11	이연주	체육교육과
5	안가현	교육학과	12	양진영	체육교육과
6	주성문	체육교육과	13	유병호	윤리교육과
7	정보림	교육학과	14	이시온	교육학과
8	정한빛	교육학과	15	최영호	교육학과
9	류연수	교육학과			



## 활동 보고

이번 2017년도 주요 활동은 봉사 활동 및 연합 활동으로 계획했습니다. 3월에는 학교 내의 동아리 박람회를 통해 신입생들을 맞이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써 50명 가량의 신입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이 다 같이 4월 달에 춘계 엠티를 가서 서로 화합을 다지면서 좀 더 화목해지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춘계 엠티 이후로는 좀 더 서로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4월 초에 한양대 에리카, 가천대와 연합 봉사로 잠실 축제 스태프로 가서 같이 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이 활동을 함으로써 더 봉사 활동과 연합 활동에 중심을 잡는 2017년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비가 오느라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서로 도와가면서 계속 열심히 봉사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동아리 회원 모두 서로에게 뿌듯함을 느꼈던 봉사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봉사가 남을 위한 것 많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동국대학교 쿠사 동아리방을 대청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가 같이 쓰는 공간이므로 동아리 회원들 다 같이 모여서 서로 도와가면서 청소를 마쳤습니다.

4월 중순에는 서울여대, 삼육대와 연합하여 벚꽃을 보러 갔습니다. 창경궁에서 인원에 맞게 조를 나눈 후 각 조끼리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으며,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창경궁을 돌아다니면서 역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서로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애기도 하게 되고 다 같이 사진도 찍으면서 다니다 보니 서로에 대한 어색함이 조금은 사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학교 사람들도 만나고 벚꽃도 보며 또한 창경궁에 대한 역사까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다들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5월 중순에 동국대 쿠사의 일일 호프가 진행되었습니다. 일일호프의 컨셉은 바캉스였으며 술집을 하루 동안 빌려 컨셉에 맞게 꾸민 뒤 6시부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OB분들부터 쿠사 동아리 회원들의 친구까지 몇몇 와주어 시

임원진					
직책	이름	학과	직책	이름	학과
회장	홍태화	전자전기공학부	부회장	권다열	기계로봇 에너지공학부
총무	한민지	전자전기공학부	연합부장	조정민	전자전기공학부
봉사부장	정성윤	전자전기공학부	파일부장	양건호	전자전기공학부
회원					
번호	이름	학과	번호	이름	학과
7	홍하은	화학과	12	진승환	기계로봇 에너지공학부
8	배진우	컴퓨터공학과	13	정동환	정보통신학과
9	유원동	일어일문학과	14	김동희	불교미술학과
10	이도현	일어일문학과	15	김미경	화학과
11	김은지	국제통상학부			

끌박적 했습니다. OB분들에게는 꽃목걸이를 걸어드렸으며, 같이 주류를 즐기며 여러 덕담들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놀러온 친구, 손님들에게는 뽕기판이나, 맥주 빨리 먹기, 술 뚜껑으로 과녁 맞추기 등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많이 준비하여 다들 재밌게 놀다가 가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와주셔서 동국대 쿠사 일일호프에서는 30만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개최한 멘토, 자원봉사에 지원하여 10여명의 동아리 회원들이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5월 말에 아름다운 동행 - 나의 유산 만들기 10이라는 주제로 첫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봉사 장소는 중요했으며 저희가 맡았던 일들은 중학교 친구들의 멘토가 되어 같이 중요함을 탐방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따라주어서 다행이었고, 저희도 잘 몰랐던 중요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보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봉사를 진행함으로써 이번년도 동국대 쿠사의 첫 정기봉사가 되었습니다. 날짜는 매월 넷째 주말에 진행되며 모두가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6월 초에는 하남에 있는 나그네 집으로 봉사를 갔습니다. 저희 동국대 쿠사의 OB형 분이 매월 초 일요일에 하는 봉사가 있다고 해서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나그네집은 지적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빨래나 음식만들기, 시설보수 같은 봉사를 했으며 중간에 간식도 나오고 점심도 챙겨주는 봉사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이불들을 발빨래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제가 이 행동을 함으로써 깨끗한 이불을 덮고 잘 분들을 생각하니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이 나그네집 봉사가 저희 동국대 쿠사의 두 번째 정기봉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기가 끝나고 종강총회를 함으로써 1학기 동국대 쿠사의 활동은 끝이 났습니다. 두가지의 정기봉사는 방학 중에도 꾸준히 같이 나갔습니다.

6월 24, 25일에는 경주로 7월 22일에는 조선왕릉, 그리고 9월 23, 24일에는 안동으로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개강하고 2학기가 되어서 두 번째 동아리 박람회도 진행하였지만, 2학기라 그런지 선뜻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없어서 신입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연합 개강 파티에 가서 다른 지회장들과 얘기를 나눠본 결과 다른 곳도 저희와 같은 추세였던 것 같습니다. 2학기에 들어서 오던 사람들도 줄어들고 그 이유에 대해 논의 해본 결과 동국대 쿠사 내의 규율이 너무 자유로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번 학기에 들어서서 갑자기 규율을 바꾸면 혼란스러울

것이므로 이 문제는 다음 회장님에게 인수인계 할 때 전달해주기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2학기의 남은 나머지 활동들은 11월 18일에 진행되는 창립제 및 낙엽제와 12월 2,3일에 진행되는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물론 2가지의 정기봉사는 꾸준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큰 2가지의 활동을 잘 마무리하는 것을 2학기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활동사진



춘계옴티



연합봉사- 잠실 축제 스탭



동아리방 청소



서울여대, 삼육대 벚꽃



일일호프



나의 유산만들기 - 종묘





## 활동 보고

저희 동덕여자대학교 KUSA는 매주 월, 화, 수, 목요일에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인 밤골아이네 공부방에 가서 교육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이 동덕여자대학교 KUSA의 주된 활동이며, 이 활동 외에 KUSA 협회 측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해 상반기, 2월에는 겨울학교에 3명이 참여하여 여러 지회의 사람들을 만나 친목을 다지고 각 지회의 활동을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KUSA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이야기 해보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3월에는 교내 동아리 박람회를 통해 새로운 55기의 선발과 OT와 신입생 환영회를 거치고 저희가 봉사 다니는 지역아동센터인 밤골아이네 공부방에서 상반기 교사회의를 진행했습니다. 4월에는 동덕여자대학교 KUSA끼리 MT를 다녀왔습니다. 5월에는 먼저, 성동 온 마을 대축제 와글와글 봉사 2명이 참가하였고,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연합 초등부 운동회 봉사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KUSA 단합대회에 12명이 참여하여 가장 참여자가 많은 지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6월에는 겨울학교와 단합대회를 통해 친해진 인연들을 통해 중앙대학교, 삼육대학교, 가천대학교와 함께 한강으로 연합 친목대회를 다녀왔습니다. 또한 밤골아이네 공부방에서 매해 실시하는 견기대회를 정령으로 다녀왔습니다. 아이들과 공부방에서의 공부와 식사가 아닌 야외를 함께 걷고 밥과 후식을 먹으며 다양한 이야기도 나눈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반기, 9월에는 KUSA연합 개강파티에 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때 전부터 알아왔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지회장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또 동덕여자대학교 대동제가 열려 KUSA주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때도 세종대와 가천대 지회에서 찾아와 주셔서 또 한번 KUSA의 의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10월에는 3월 달에 진행한 상반기 교사회의와 같이 하반기 교사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1월에는 동덕여자대학교 KUSA만의 선후배간의 멘토링인 '시작'을 실시하였습니다. 선기수(54기)가 후기수(55기)에게 밥을 사주며 동아리 활동에 대한 고민, 고충을 들어주며 피드백을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2017년 인준식을 가졌고 동덕여자대학교 KUSA 선배님들과 함께 쿠사인의 밤을 진행하여 모였습니다. 마지막 12월에는 KUSA 연합 전국대회에 6명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밤골아이네 공부방 초등부 성탄잔치 및 송년회에 참여할 예정이며 교내 동아리 지원금을 받아 밤골아이네 공부방 친구들을 위한 선물을 사서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 임원진

직책	이름	학과	직책	이름	학과
회장	한지은	국어국문학과	부회장	김자영	국어국문학과
총무	최연서	경영학과	회무부장	윤 희	영어과
서기	김선아	프랑스어과			

### 회원

번호	이름	학과	번호	이름	학과
6	오지원	영어과	12	장은별	중어중국학과
7	권민아	영어과	13	조영연	프랑스어과
8	김영주	문헌정보학과	14	최원진	문헌정보학과
9	명재인	독일어과	15	한지수	정보통계학과
10	송효진	응용화학과	16	황지원	아동학과
11	이현주	컴퓨터학과			

활동사진



공부방활동



겨울학교



동아리 홍보(박람회)



신인생활영화&OT



동덕MT



외글외글 봉사



단합대회



연합친목대회



건기대회



연합개강파티(9월)



동덕 축제 주점



'시작'



인준식



쿠사인의 밤



## 활동 보고

**| 모꼬지:** 4월 1일 신입생과 재학생 동문들과 함께한 엠티, 2017년 첫 행사이다. 명지대 쿠사 회원들 간에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벽을 허물었다. 재학생들 참여가 저조하여 크게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 어린이날 봉사:** 5월 5일 왕십리에서 와글와글 어린이날 봉사 행사를 하였다. 명지대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쿠사 사람들과 함께 봉사를 하여 더 뜻 깊은 행사였다.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고 놀이기구를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봉사였다. 봉사하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여서 아쉬웠다.

**| 현충원 봉사:** 6월 6일 동작역 서울 국립 현충원에서 봉사 했다. 명지대학교 쿠사에서 매년 가는 봉사이자 큰 행사 중 하나이다. 현충일이라 국가유공자를 찾아오시는 유가족 분들을 안내했다. 우리나라에 과거를 돌아보고 잊지 말아야 하는 아픔을 마음속에 다시 새기는 좋은 경험을 하고 온 봉사였다.

**| path 3기:** 여름 방학 때 쿠사 연합협회에서 주관하는 path 3기 교육 봉사를 갔다 왔다. path 3기는 가평에 있는 분교로 가서 일산에서 온 고등학생들과 1박 2일 동안 분교 초등학생들에게 재능 기부를 하는 봉사였다. 아쉬운 점은 초등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프로그램을 못 짜주었던 것이다.

**| 김장 봉사:** 11월 3일 서울광장에서 하는 김장 봉사를 갔다 왔다. 가서 배추를 나르고 김치를 양념에 버무리고 담그고 하였는데 그 담근 김치가 불우 이웃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선착순으로 예약한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봉사에 의미에서는 아쉬웠다고 할 수 있었다.

임원진					
직책	이름	학과	직책	이름	학과
회장	최봉준	전기공학과	부회장	이병근	전자공학과
홍보부장	손용석	전기공학과			
회원					
번호	이름	학과	번호	이름	학과
4	이영웅	전기공학과	17	강지윤	정보통신공학과
5	허재석	전기공학과	18	박지민	컴퓨터공학과
6	권혁민	전기공학과	19	김근동	전자공학과
7	조동연	전기공학과	20	김혜준	전자공학과
8	임진아	전자공학과	21	박동준	전자공학과
9	이은지	화학공학과	22	백하은	전자공학과
10	이현정	화학공학과	23	김수환	전기공학과
11	정윤경	화학공학과	24	서수미	기계공학과
12	오종수	전기공학과	25	염규현	정보통신공학과
13	송인석	전기공학과	26	이인웅	전기공학과
14	송재근	전자공학과	27	김희중	정보통신공학과
15	강우빈	전기공학과	28	황경호	전자공학과
16	강상욱	영상디자인과			

활동사진



# 삼육대학교



임원진					
직책	이름	학과	직책	이름	학과
회장	한지훈	카메카트로닉스	부회장	김선중	화학과
문화부장	오윤선	간호학과	기획부장	김홍윤	카메카트로닉스
총무	김선홍	카메카트로닉스	서기	김정아	동물생명자원
회원					
번호	이름	학과	번호	이름	학과
7	이승태	카메카트로닉스	28	박소연	중국어학과
8	배성열	카메카트로닉스	29	백지호	중국어학과

9	최유창	카메카트로닉스	30	장성민	중국어학과
10	이준규	중국어학과	31	전주리	중국어학과
11	이선용	중국어학과	32	정민지	중국어학과
12	김윤선	식품영양학과	33	남궁빈	일본어학과
13	임선주	식품영양학과	34	강유진	화학생명과학
14	백유정	컴퓨터학과	35	노석효	화학생명과학
15	이수경	유아교육과	36	김미선	간호학과
16	강민경	동물생명자원	37	김민주	간호학과
17	안종하	컴퓨터학과	38	김서현	간호학과
18	양혜인	컴퓨터학과	39	신주영	간호학과
19	이다인	컴퓨터학과	40	주혜수	간호학과
20	정현수	컴퓨터학과	41	김현빈	컴퓨터메카트로닉스
21	권영주	동물생명자원	42	최인규	컴퓨터메카트로닉스
22	최상훈	컴퓨터학과	43	강동수	건축학과
23	반철준	카메카트로닉스	44	김남경	건축학과
24	김지우	영문학부	45	김성우	건축학과
25	유대원	영문학부	46	이희서	건축학과
26	임지현	영문학부	47	박진홍	건축학과
27	권예빈	중국어학과	48	김채영	영문학부

## 활동 보고

2017년도 삼육대학교 유네스코학생회가 타 유네스코 학생회와 진행했던 연합활동들은 다음과 같다.

3월 10일, 2017 한국유네스코 회의에 참석하였다. 새물결 이념과 실천 강령을 통한 대학별 활동방향을 정립하고, 유네스코 학생회의 과거를 알고 현재를 반성하며 새물결 100년을 다짐하였다. 유네스코 학생회의 공동활동목표를 제정해서 이를 실천으로 옮기며 올바른 대학 문화를 주도하였다. SDGs라는 새로운 발전목표에 관해서도 다뤄보았다. 삼육대학교 유네스코위원회에서는 회원 5명이 참가했다. 각 KUSA 지회마다 모여 SDGs에 관한 강의를 듣고 생각을 나누고, 서로 학교의 상반기 계획을 나누고 짝지회 활동을 기획하였다.

그리고 3월 11일 한국유네스코학생협회 2017 상반기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쿠사의 새로 만든 규약들에 대해 소개받고 부의장/서기를 선출하였다. 2017 겨울학교 결산을 하였고 KUSA 2017 상반기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유네스코 학생회 파트너십 강화와 새물결 운동의 이해가 주목적이다. 지회등록에 관해 설명해주고 나머지 공지사항을 설명해주며 회의를 마쳤다. 회원 6명이 참가하였다. 부의장으로는 송실대학교 51기 노정민군이 선출되었고 서기로는 중앙대학교 54기 서현종군이 선출되었다. 1년 사업계획으로 단합대회나 PATH 3기 모집, 전국대회 등을 결정하였다. 지구사업도 활발히 계획했다. 4월 9일 문화 활동의 일환으로 삼육대, 서울여대, 동국대 3개 대학 연합으로 창경궁 답사를 진행하였다.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재를 답사하여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과 지식 함양을 취지로 계획했다. 한 시간 가량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창경궁에 관한 정보와 역사를 알게 되었다. 가이드 설명 후 조를 나눠 창경궁 관람과 역사 관련 퀴즈 활동과 보물찾기 등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각 학교별 교류와 친목활동을 도모하였다

5월 27일~28일에서는 KUSA 새물결 단합대회에 참석하였다. 유네스코 학생회가 전개하고 있는 '새물결 운동'은 유네스코 학생회의 정신적 출발점이자 목표이다. 이 운동은 그 현장에서 밝히고 있듯이 '새로운 인간관계의 창조를 통하여 세계평화와 인류복지 구현에 기여하려는 젊은이들의 자발적 자아개혁신동'이라는 취지에 맞춰 전 국 대학의 각 KUSA지회에서 참가해 각 학교별 동아리원들과 친목을 다지고 학교별 대항전, 각 지회에 대한 홍보 및 레크리에이션 등을 진행하였다. 인맥을 넓히고 추후 있을 학교별 연합활동에 대한 계획과 일정을 세울 수 있었다.

6월 3일 가천대, 동덕여대, 삼육대, 중앙대 등 각 학교 약 20명가량이 모여 연합 활동을 진행하였다.

각 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쿠사에 일원으로서 그동안 모르고 지냈던 다른 학교 연합원들과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며, 레크레이션 진행과 갖가지 준비한 활동들로 알차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각 학교 지부의 쿠사 인원과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고, 방학 기간에 있을 모임과 활동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 하였다.

9월 15일에는 KUSA 연합개강파티에 참석했다. 전국에 있는 유네스코 학생협회 학생들이 모여 유네스코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다음 짝지회를 기획하기 위해 힘쓰는 등 각 학교마다의 교류가 이번 활동의 취지였다.

삼육대학교 유네스코학생회 내부 활동은 다음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1학기 3월7일부터 3월10일, 2학기 9월11일부터 9월 13일까지 교내 행사 중 하나인 동아리 홍보전에 참여하였다. 유네스코 전국 연합 동아리 KUSA의 대한 설명과 장점 등을 담은 홍보지와 배포와 설명회를 삼육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동아리 홍보전이 끝난 그 다음주에는 삼육대학교 유네스코학생회 개강총회 및 신입생 환영회를 진행하여 홍보전이 부스에서 진행하기에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약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 한국 유네스코 학생회의 이념, 목표, 활동과 함께 삼육대학교 유네스코 학생회의 구성 체계 및 지난 학기의 활동들을 예시로 활동계획 등을 ppt로 소개했다.

그리고 매달에 최소 한번은 정기 임원 회의와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정기 임원회의는 매학기 첫 번째 회의에서는 투표를 통해 문화부장, 기획부장 등 부장 및 총무 등 학생회내의 임원들을 선출하는 자리를 가졌고 이후 선정된 임원들이 모여 삼육대학교 유네스코학생회의 전반적인 활동들을 계획하는데 초점을 두어 진행하였다. 토론회는 1학기에서는 우리가 사는 사회에 대하여 직접적인 토론 및 토의를 진행하였다. 대표적으로 3월 30일은 쿠사 정기 토의로 대학생이 대선주자와 정치인에게 바라는 점, 혹은 앞으로의 대학의 미래에 대해 토의했으며 현재 대학의 모습과 우리가 바라는 대학의 모습, 그리고 다가오는 벚꽃 대선을 보며 차기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대학생의 정책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누었다. 2학기에는 부원들의 독서 독려를 위해 독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10월, 11월 두 번의 독서토

론 활동을 진행했다.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저자 존 그레이)'을 선정해 읽고 이성과의 입장 및 생각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역사 소설 '고구려 4.5(저자 김 진명)'을 선정하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단 몇 줄 밖에 나오지 않은 '고국원왕'을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리고 현재 다음 독서토론 활동을 위해 '소년이 온다(저자 한강)'를 읽고 작품내의 등장인물들의 행동에 대해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교내 행사 중 축제에 해당하는 '천보 축전'과 삼육대학교 내에 있는 '사랑 나눔 주간'에 부스 활동에 참여하여 유네스코의 이념 '새물결'과 새로운 발전 목표인 SDGs에 대한 홍보물을 통해 소개 및 자세한 설명과 함께 먹거리를 판매하여 삼육대학교내의 행사 분위기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기말고사가 끝난 후 종강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삼육대학교 유네스코 학생회 내에서의 1개월 단위로 진행되었던 활동들을 보고하고 그에 따른 회비 사용 내역 등을 도서관 내의 스터디 룸 혹은 캠퍼스 내 강의실에서 PPT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학기 활동을 끝낼 것이다.

## 활동사진



동아리 홍보전



동아리 OT



한국위원회 회의, 학생협의회 참석

활동사진



정기 토론/토의



동덕여대 쿠사 연합



서울여대 쿠사 연합



한위 회의, 학생협의회 참석



새물결 단합대회 참가



## 활동 보고

### MT(2017년 3월 17~18일)

54기 임원진들이 선발대와 후발대로 나누어 MT를 준비하였다. 선발대가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후발대가 학교에서 55기 신입생들을 데리고 왔다. KUSA 전통으로 53기 전 회장, 총무 그리고 임원진 선배님들께서 참석하여 고기를 구워 주셨다. 저녁을 먹으면서 신입생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선배님들의 조언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임원진들이 준비한 게임을 진행하여 서로 간에 어색함을 풀어 줄 수 있었다. MT를 통해서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동아리 안에서 KUSA라는 소속감으로 단합이 되었다. 55기 신입생 친구들이 잘 따라주는 모습을 보고 54기는 이제는 의지하는 입장이 아니라 현재 위치에서 선배로서 책임을 갖고 후배들을 잘 지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 창경궁 답사(2017년 4월 9일)

KUSA가 유네스코 동아리인 만큼 문화재 답사 또한 활동에서 빠지지 않는데 올해는 봄에 벚꽃이 만개해 예쁜 창경궁 답사를 다녀왔다. 1시에 모여 해설사와 함께 창경궁 곳곳을 투어 하여 정확한 역사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약 1시간 반 정도의 해설을 들은 후 조를 나누어 조별로 보물찾기를 수행했다. 보물찾기는 십자말풀이를 푼 후 정답의 장소에 가면 보물이 있는 형식으로 진행 해 조원들과 자연스럽게 친목도 쌓고, 해설로 얻은 지식을 정확하게 습득하는 1석2조의 효과를 얻었다.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게 아름답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였고, 평소에 크게 관심 없었던 우리나라 문화유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 기회였다. 첫 연합이라 걱정도 됐지만, 걱정이 무색할 만큼 재미있고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 SDGs 수익사업(2017년 5월 17~18일)

매달 유기견 보호 센터로 봉사를 가는데 유기견들을 위해 봉사 외에도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SDGs의 일환으로 수익사업을 진행 해 수익을 전부 기부하기로 했다. 공강 시간에 54기, 55기 동아리원들이 수익사업 부스에서 각테일을 팔았다. 첫 번째 날에는 생각보다 많이 팔리지 않아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두 번째 날에는 예상했던 것만큼 팔려서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다. 학우분들, 교수님들이 유기견들을 위해 수익의 전액을 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관심을 주셨다. 많은 분들이 각테일 금액보다 많은 돈을

#### 임원진

직책	이름	학과	직책	이름	학과
회장	조윤주	식품공학전공	부회장	우성은	경영학과
총무	박은지	경영학과	봉사부장	김민지	사회복지학과
기획부장	김가은	문헌정보학과	홍보부장	김도현	경영학과
기장	이양령	원예생명조경학부	부기장	백지나	경영학과

#### 회원

번호	이름	학과	번호	이름	학과
7	송민주	식품공학전공	12	이선주	수학과
8	전유진	교육심리학과	14	이에은	자율전공학부
9	최은정	영어영문학과	15	전주영	경영학과
10	황희원	불어불문학과			

주고 가시며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수익사업과 주점을 진행하며 안 친했던 친구들과 더 친해질 수 있던 계기가 되었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뜻 깊고, 뿌듯한 생활을 할 수 있어 보람차다.

### 문화재 답사(2017년 5월 3일)

경기대와 함께 한 두 번째 문화재 답사이다. 문화재 답사에 참여한 친구들 중 몇 명은 중, 고등학교 때 많이 가보았지만 대학생이 되고 나서 가보니 가이드가 하는 설명이 더 잘 이해되고, 많이 들었던 설명이지만 새롭게 들렸다고 한다. 원래 섭외했던 가이드분이 스케줄이 맞지 않아 다른 분이 해주셨는데 유네스코 동아리라는 것을 알고 유네스코에 관련 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셔서 다들 많은 관심을 갖고 들었다. 실내에서 가이드의 전체적인 설명이 끝난 후 다 같이 밖으로 나와 직접 눈으로 보며 설명을 들었다. 몽촌토성 투어가 끝난 후, 한성 백제 박물관으로 가서 설명을 듣고, 퀴즈를 푸는 시간을 가졌다. 가이드의 설명만으로는 완벽히 습득할 수 없었던 부분을 직접 찾아보며 퀴즈를 풀어 더 이해가 잘 되고, 유익했던 시간이었다.

### 청춘공방(2017년 9월 15일)

청춘공방에서 드림블라썸페스티벌을 개최해 KUSA 또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학기 축제 때 수익사업으로 벌인 수익금의 전액을 매달 봉사 다니고 있는 유기견보호센터에 기부를 했다. 그 사실을 학우들에게 전하고 또한 유네스코 동아리인 KUSA가 중점을 두어 활동하고 있는 SDGs에 대한 설명을 부스에 오는 학우들에게 진행했다. 설명을 듣고 SDGs를 일상생활에서 진행하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며 포스트잇에 적어 붙이고, 롤렛을 돌려 나오는 상품을 나눠드렸다. 예상보다 학우들이 많이 참여해 상품을 중간에 더 사오며 정신없이 부스 운영을 마쳤다. 하루 종일 설명하고 진행하느라 다들 힘들었지만, KUSA가 어떤 동아리인지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릴 수 있어 즐겁게 참여 할 수 있었다.

### 학술제(2017년 11월 14일)

서울여대 쿠사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학술제를 진행했다. 작년 학술제와는 다르게 학술적인 부분과 친목을 목표로 준비했다. 선배들에게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활동을 했고, 그 활동을 통해 무엇을 얻고 느꼈는지를 발표했다. 또한 타 학교의 축사영상을 받아 동영상 제작 해 함께 감상하며 1년을 되돌아보았다. 결과적으로 선배들께서는 전통인 문선을 따르지 않는 부분에서

실망하셨지만, 54기, 55기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빼고 다 같이 즐기며 더 알차게 준비하고 실행했다고 생각해 만족했다.

### 교육봉사(2017년 3월30일, 4월3일, 5월1,11,16일, 6월1,7,27일, 7월5,18일, 8월2,8일, 9월5,6일, 10월9일)

초등학생이 주로 있는 북부열린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정전기 유도현상, 전하의 인력과 척력을 나타내는 실험을 진행했다. 조금 난이도가 있지만 고학년이 주로 오는 날짜였기 때문에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실험이라 생각해 진행했다. 고무풍선, 비닐봉투, 가위, 테이프, 마른 수건 으로 하는 간단한 실험이다. 마른 수건으로 자른 비닐 봉지와 고무풍선을 무지르고 서로 가져다 대보면 원통형 비닐이 왕관처럼 펼쳐지며 공중부양을 하게 된다. 이 실험을 통해 아이들이 과학 실험에 의문을 갖고 일상 생활에서의 과학에 쉽게 접근하여 흥미를 갖게 만들고 싶었다. 또한 실험을 통해 학습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아이들이 새로운 활동을 진행 해 많은 흥미를 보였고, 앉아서 그림 그리며 하는 것보다 봉사자들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 뿌듯했다.

### 유기견 봉사(2017년 2월25일, 4월22일, 5월20,21,25일, 6월9,25,29일)

사람들을 위해 기부 할 기회는 종종 있었지만 유기견을 위해 기부 할 기회가 생겨서 정말 좋았다. 지난 달 SDGs를 기반으로 진행한 수익사업을 통해 번 모든 수익을 매달 가는 남양주 유기견 보호센터에 기부를 하였다. 비록 엄청난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봉사도 하고 기부금을 잘 전달하고 왔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정말 많다는 것을 한번 더 느끼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학교 학우 분들 중 관심 있는 신 분들을 연결해주면 좋겠다. 사람들이 단순히 강아지를 하나의 상품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생명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활동사진



MT 게임하며 친목 다지기



SDGs 프로젝트



창경궁답사



문화재 답사



교육봉사



학술제



## 활동 보고

1. 신입기수 모집55기로 들어올 새로운 쿠사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해 학기 시작되었을 때 교내 광장에서 설명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제작 및 배포해 준 책자와 팸플릿을 나누어 주고 동아리에 대한 설명과 활동 내용에 대해 듣고 가는 학우들에게 젤리를 증정하는 방식으로 부스가 운영되었습니다. 이 후에는 간단한 지원서 작성과 면접을 통해 쿠사에 대해 나름의 사전지식을 갖추고 있고, 활동의지를 보인 학우들을 우선으로 하여 차기 활동 인원 모집을 마쳤습니다.

2. 연합활동4월에는 중앙대 쿠사와 연합하여 국립중앙박물관의 이집트 보물 전 전시를 관람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함께 관람을 마쳤지만 비가오고 수업이 끝난 후 이루어진 활동이라 시간이 늦어 더 친밀한 교류로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원래는 계절에 맞추어 고궁을 답사하기로 하였으나 급작스럽게 주말로 스케줄을 맞추기 어려웠고 비가 와서 무산되던 교류를 부랴부랴 그러모은 활동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협회에서 계획하고 진행한 활동과, 신환회 등의 활동에도 참석하였습니다.

3. 정기 세미나&회의시험 기간을 제외하고 매주 수요일 저녁 지회활동 차원에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숙명쿠사 회원들이 가입되어있는 카페에 주제와 관련하여 관심있는 이슈들에 대한 자료, 혹은 기사, 텍스트 등을 게재하고, 최소 전날 서로의 자료를 꼼꼼히 읽어보고 온 뒤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본인의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의견이 오가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SDGSs 안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했지만 결국 모든 이슈가 서로 고리고리 연결되어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냈고, 매주 꾸준히 담론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활동이었습니다.

4. 축제 부스 운영의견을 종합한 결과, 세미나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된 주제와 연관 지어 부스를 운영하자는 안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 109주년을 기념하며,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치며 여성의 생존권과 참정권을 주장했던 여성운동을 오마주한 부스를 계획했습니다. 머랭쿠키를 개별포장

### 임원진

직책	이름	학과	직책	이름	학과
54기 기장	조민기	교육학부	54기 부기장	박채림	프랑스언어문화학과
54기 총무	장은숨	프랑스언어문화학과	54기 연합부장	정나희	프랑스언어문화학과
55기 기장	장지안	프랑스언어문화학과	55기 부기장	이명지	

### 회원

번호	이름	학과	번호	이름	학과
7	양동언	관현악부	10	허승원	문헌정보학과
8	이호민	경영학과	11	고은희	아동복지학과
9	변유정	경영학과	12	박은빈	영어영문학과

하여 페미니즘 문구를 적은 스티커를 부착하고, 같은 스티커가 부착된 음료를 판매하였습니다. 쿠키와 음료를 구매한 학우에게는 장미 한 송이를 전달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저소득층교육지원센터에 기부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활동사진



2017년 4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서울지회 타대 쿠사와 연합하여 이집트 보물전 전시를 관람하고 왔습니다. 박물관 전시 외에도 외관이나 박물관으로 가는 길 등등에서도 볼 거리가 많았고, 숙명여대 지회 외 다른 지회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2017년 1-2학기  
매주 지회 내에서 SDGs 의 주제를 하나씩 골라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여학우로 이루어진 만큼 여성인권과 교육,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졌고, 다른 주제들과도 고리고리 연결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각자 주제관련 자료나 텍스트를 조사해와 자신의 자료에 대해 간단한 프레젠테이션 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2017년 5월  
축제를 맞이하여 we want bread, but rose too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 109주년을 기념하여 머랭쿠키와 음료를 구매하면 참정권을 의미하는 장미를 나누어주었습니다. 부스에 들러 장미를 받아가는 학우들에게 SDG 프로젝트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대한 설명도 진행했습니다.



9	장소영	환경보건학과	24	최서진	식품영양학과
10	신재은	환경보건학과	25	강동우	법학과
11	정수희	중어중문학과	26	김도연	법학과
12	전소윤	사물인터넷학과	27	김민형	영미학과
13	김유진	사물인터넷학과	28	박찬중	사물인터넷학과
14	한예슬	사물인터넷학과	29	백준기	국제·상학과
15	김수진	중국학과	30	주수영	환경보건학과
16	백승우	사물인터넷학과	31	이영빈	국제통상학과
17	여혜인	컴퓨터 소프트웨어공학과	32	이에빈	영미학과
18	서수현	보건행정경영학과	33	이현지	영미학과
19	배달한	국제통상학과	34	김태경	사물인터넷학과
20	노준영	경제금융학과			

## 임원진

직책	이름	학과	직책	이름	학과
지회장	강문홍	환경보건학과	부회장	이소현	관광경영학과
총무	김세린	관광경영학과	대외부장	김남호	사물인터넷학과
홍보부장	김승환	컴퓨터 소프트웨어공학과			

## 회원

번호	이름	학과	번호	이름	학과
6	최지호	국제통상학과	21	천혜연	글로벌문화산업학과
7	조정윤	관광경영학과	22	조성주	글로벌문화산업학과
8	한서연	국제통상학과	23	이호정	식품영양학과

1학기

| **개강파티** 2017년도에 처음 하는 행사였으며, 개강총회를 통해 50여명의 동아리원들이 활동 전 서로를 알아가고 친해지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임원진 소개와 동아리원 소개를 비롯하여 학교 다닐 때 유용한 팁을 공유하는 자리로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 **동아리 홍보관 운영** 신입생들에게 어떤 성격과 유형의 동아리들이 있는지 홍보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순천향대 쿠사에서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주는 활동과 직접 유네스코 관련 퀴즈를 만들어 신입생들에게 맞추게 함으로써 서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 **동아리박람회 / 물의 날 행사** 야외에서의 첫 행사였으며 다른 중앙동아리들과 함께 신입생 모집 및 동아리 성격에 맞는 활동을 운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에 순천향대 쿠사에서는 물의 날을 맞이하여 라이프스트로우를 배치하고 물의 소중함과 재활용을 하는 것에 대한 이로움을 학우에게 전달 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라이프스트로우를 소개하자,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라이프스트로우를 직접 만져보는 경험을 하면서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물이 부족한 곳 등의 예를 들며 물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물질약 행동들을 소개하며 실천하기를 권유하였습니다. 이 활동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물을 절약하고 아끼는 행동을 실천하기를 기대했습니다.

| **4월 식목일 행사** SDGs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식목일 맞이 식물보호 캠페인 부스를 운영 및 진행하였습니다. 캠페인을 통하여 현재 심각해지고 있는 오염들과 그 오염들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림자원들을 소개하고 나무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들을 모아 손가락 지장나무를 만들어 나무를 아끼겠다는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게 하였고, 추첨을 통하여 씨앗연필, 재배세트, 툴립, 소피아, 히아신스, 치자를 선물로 증정하여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였습니다.

| **5월 가정폭력 캠페인 활동** SDGs프로그램의 일환으로 5월 가정폭력 반대 캠페인 부스를 운영 및 진행하였습니다. 본 부스에서는 현재 가정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의 조사한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가정폭력 실태 현황에 대하여 알리고, 가정폭력이 단지 육체적인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

니라 정신적, 금전적, 언어적 모든 수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 하여 스스로 폭력에 대한 경계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with love, not violence' 라는 구호를 만들어 이를 실리콘 팔찌에 새기고 참여자들에게 모두를 증정하였습니다. 이 팔찌를 함으로써 가정 폭력의 방관자가 아닌 신고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 **5월5일 어린이날 봉사**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성동구청 외글외글 장터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하여 가족들이 다같이 나와서 즐길 수 있는 장터 형식의 축제에서 저희 순천향대 쿠사는 운영본부 부스를 도맡아 업무를 하였습니다. 입장 도와주기, 필요전력 운반하기 등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같이 힘을 합하여 봉사하면서 협업심을 기르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에 임하였습니다.

2학기

| **개강파티** 1학기 개강파티처럼 임원진 소개와 동아리 소개 후 각자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학기 신입부원을 모집한 후 처음 모이는 자리였기에 어색함도 많았지만 금세 다들 친해지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모이는 자리임에도 시간이 맞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참여자가 약 20명 정도로 과반수를 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모임을 기점으로 친목이 다져진 사람들끼리 동아리 활동에 잘 참여하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만나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 **UMLT** 대천으로 MT를 갔습니다. 출발 전 조를 나눠 미션을 수행하고 마니또, 복불복 등의 게임을 하며 친목을 다지고 엠티 마지막 날에는 엠티 참가자들끼리 롤링페이퍼를 적으며 서로 추억을 남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엠티에도 참여자가 8명밖에 되지 않아 많은 인원이 참가하여 친목을 다지지 못함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번 엠티 계획은 조금 급하게 짜여져 날짜를 정하는 데 동아리원들의 의견이 잘 모이지 않았습니. 하지만 엠티를 다녀온 사람들끼리의 친목이 두터워져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 백승우, 사물인터넷학과: 동아리에서 새로운 분들과 여행다녀오게 되었는데 정말 즐거웠고 친해지게 되어 좋았습니다.
- 이예빈, 영미학과: 이번에 같이 갔던 언니들이 너무 많이 준비해주셔서 더 재미있게 놀수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랑도 가고 싶습니다.

같이 갔던 친구들이랑도 친해져서 너무너무 잘 놀았습니다.

- 김세린, 관광경영학과: 회장이 없어서 너무 아쉬웠지만 그래도 새로운 17학번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유네스코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을 가지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 김민형, 영미학과: 평소에 낮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동아리 엠티를 신청해 놓고도 가기 전날 어색하면 어찌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엠티에 참여하고 보니 엠티간 친구들과 선배님들이 너무 살갑게 대해줘서 금방 잊고 재밌게 놀 수 있었다. 처음으로 간 동아리 엠티였는데 엠티 프로그램도 좋았고 게임들도 재밌었다.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해서 다른 동아리원들과도 친해지고 싶다.

| SDGs 프로젝트 1차 부스운영(SRC나눔 페스티벌 참가) 학교에서 진행되는 SRC나눔 페스티벌에서 SDGs프로젝트 1차 부스 운영을 하였습니다. SDGs의 17가지 목표 중 3번 목표인 전연령층의 건강한 삶과 웰빙에 초점을 맞추어 체험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 중 건강한 성생활을 올바르게 하기 위함을 주제로 잡아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총 이틀에 나누어 진행되는 SRC나눔페스티벌에 맞추어서 첫째날 (11/14)은 퀴즈를 통해 성관계나 남자나 여자의 신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날 진행하는 행사라 부스 운영에 익숙해지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금방 적응하여 사람들에게 SDGs에 관해 설명하고 동아리 홍보를 하였습니다. 준비해간 퀴즈는 사람들이 많이 못 맞출 것이라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잘맞추었습니다. 이번 첫째날 부스를 기반으로 15일 있을 부스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 활동사진



어린이날 봉사



UMLT



SDGs 1차 부스 / SRC 나눔 페스티벌 14일



## 활동 보고

### 2017년 4월 12일

총학에서 주최에서 진행되었던 캠퍼스 벚꽃 축제에 대한 토론 논의가 있었습니다. 벚꽃 축제는 송실대학교의 봄축제로, 동아리가 원하면 참여신청을 해 부스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벚꽃축제는 송실대학교의 대동제의 크기보다는 작게 운영되었지만,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벚꽃축제가 끝나고 한 이 회의를 통해 학교의 주체인 학생들이 느낀 생각이나 반응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동아리 변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동아리 변화에 대한 논의로 동아리가 개선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 2017년 5월 20, 27, 28, 31일

참여인원은 5일에 3명, 20일에 20명, 27일과 28일에 7명, 31일에 6명이었습니다. 5월 5일은 성북구 마을축제인 와글와글 자원봉사를 했고 20일에는 쿠사의 47번째 홈커밍데이, 27, 28일은 연합 쿠사에서 진행한 전국 단합대회, 31일은 학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와글와글 자원봉사에서는 보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홈커밍데이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선배와 후배 간의 친목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홈커밍데이는 특히 알찬 구성으로 동아리 회원들의 호응도 좋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선배들의 조언 듣기, 선배들과 후배들의 친목을 위한 여러 가지 게임들, 3분스피치(자유주제로 자신의 이야기하기)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3분 스피치는 호응이 좋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회원들에게 자유롭게 전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전국단합대회에서는 여러 학교들을 만날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고, 학술시간에는 주제를 정해 여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술은 단편영화를 보고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동아리의 개선해야할 점을 이야기하며 동아리의 개선방향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어떻게 동아리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인가, 앞으로 활동들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동아리 회원들은 자신들이 동아리의 일부라는 생각을 좀 더 확실하게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직접 동아리의 경영에 참여하고 의견을 냄으로써 적극적인 동아리 정회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임원진

직책	이름	학과	직책	이름	학과
회장	안정윤	경제학과	부회장	최우식	평생교육학과
회계	박정보	경제학과	연합	구교찬	기계공학과
봉사	허성욱	전자정보공학부(IT융합)	봉사	최병호	기계공학과

### 회원

번호	이름	학과	번호	이름	학과
7	송차영	전자정보공학부	16	홍종화	산업정보 시스템공학과
8	민지현	전자정보공학부	17	이재현	기계공학과
9	김종관	기계공학과	18	박희준	기계공학과
10	차진홍	정보통신전자공학부	19	고정욱	전자정보공학부 (IT융합)
11	김은진	글로벌미디어학부	20	정연욱	전자정보공학부 (IT융합)
12	한인호	기계공학과	21	손세현	경제학과
13	박준홍	스마트시스템 소프트웨어학과	22	강선영	기계공학과
14	노정민	전기공학부	23	정대현	기계공학과
15	김요한	스마트시스템 소프트웨어학과	24	유희진	전자정보공학부

### 2017년 6월 21일

6월 21일은 1학기 종강을 맞아 종강총회를 하였습니다. 종강총회에서는 1학기 활동보고와 회계자료 설명 등이 있었습니다. 동아리 회원들은 종강총회에 참여해 동아리 활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며, 의문점이 생기면 질문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첨부된 회계자료도 참여한 동아리 회원들 모두에게 나누어줌으로써 회원들이 회계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17년 6월 25~26일

KUSA 여름애크티가 있었습니다. 대성리에서 진행하였으며, 회원들이 재미있게 놀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고 앞으로의 동아리 활동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회원들의 친목 또한 더 돈독해졌습니다.

### 2017년 9월 29일

9월 29일 학교 대동제를 맞이하여 KUSA도 부스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저희끼리 뒤풀이를 하며 친목도모를 하였습니다. 부스 운영을 하면서 회원들과 좀 더 가까워 질 수 있었고, 회원들은 자신들이 동아리의 일원이 되어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학교 KUSA 학생들도 동아리 부스에 놀러와 송실대 쿠사가 어떤 동아리 부스를 운영하는지 보고 응원해주었습니다. 송실대학교 쿠사 학생들 끼리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 쿠사학생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응원 받을 수 있어서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끝나고 뒷정리도 모두 합심하여 함으로써, 동아리 회원들 간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뒷정리도 깨끗하게 하여 모범적인 동아리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2017년 10월 11일

학술활동을 하였습니다. 학술주제는 '자신이 들었던 교양 과목 중 회원들에게 추천할 만한 교양은?' 이었습니다. 이 학술을 통해 자신이 공부했던 과목을 설명할 수 있었으며, 회원들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하며 자신이 들었던 교양과목을 다른 회원들에게 추천해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술주제가 무거운 주제가 아니었던 만큼, 모두 여러 생각을 자유롭게 부담없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에는 동아리 2학기 종강총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2학기 종강총회도 1학기 때와 같게, 회계자료를 첨부하고 설명함으로써 보다 깨끗한 동아리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활동사진



새물결 단합대회



여름애크티



종강총회



대동제



홈밍데이



학술



## 활동 보고

**| 암사 어린이 재활원 정기봉사활동** 지적,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암사동 어린이 재활원 센터에 매달 둘째 주 토요일마다 봉사활동을 하며 특정 행사가 있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날에도 암사 재활원에 가 봉사를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활동 중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을 통해 배려의 마음을 전달해오고 있습니다.

**| KUSA 정기모임** 격주에 한 번 목요일 저녁마다 정기적으로 회의 및 친목도모의 모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주로 식사와 술자리를 가지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벚꽃놀이 구경, 영화관람, 보드게임카페 등 다양한 친목도모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요일이 여의치 않을 경우엔 다른 날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 신촌 동아리 박람회+신입 동아리원 면접** 신촌 동아리 박람회를 통하여 그 동안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것들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알리는 시간과 신입 동아리원을 새로 뽑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금 동아리의 앞날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KUSA 1학기 개강총회 및 신입생 환영회** 55 기를 포함하여 많은 KUSA 회원들이 참가한 정기 회의를 하였습니다. KUSA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의논하고 돌아보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 KUSA 1학기 총 MT** 새로 뽑은 55기와 다른 기수들도 함께 일영유원지로 총 MT를 다녀왔습니다. 어색함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봉사부 소모임** 저희 동아리의 한 부서인 봉사부에 들어온 신입부원들과 함께 첫 소모임을 가지면서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봉사부의 기존기수들과 신입부원들이 서로 좀 더 돈독해지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 KUSA 고려대학교와 대면식** 고려대학교 KUSA와 연세대학교 KUSA의 서

임원진					
직책	이름	학과	직책	이름	학과
회장	정웅섭	신소재공학과	부회장	한관우	UD 국제학과
총무	김정윤	UD 국제학과	미화부장	김영웅	실내건축학과
봉사부장	신경섭	기계공학과	기획부장	정그린	국어국문학과
회원					
번호	이름	학과	번호	이름	학과
7	강유정	경영학과	12	김영도	토목환경공학과
8	강주연	경영학과	13	이세윤	교육과학계열
9	김가현	경영학과	14	이승규	신소재공학과
10	김성현	토목환경공학과	15	이형원	기계공학과
11	김승현	지구시스템과학과			

로간의 신입생을 포함하여 신촌에서 모여 대면식을 하면서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동방청소+ 뒷풀이** 동아리의 한 부서인 미화부원들과 미화부장의 주도 하에 다른 동아리원들과 함께 동아리방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동아리방 대청소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봉사부 회식** 기존 봉사부원들과 신입 봉사부원들끼리 좀 더 친목을 다지기 위해 회식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벚꽃 나들이** 벚꽃 축제에 가고 싶은 동아리원들끼리 모여서 벚꽃 나들이를 가서 축제도 즐기고 친목을 다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미화부 회식** 기존 미화부원들과 신입 미화부원들끼리 좀 더 친목을 다지기 위해 회식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KUSA 중간고사 간식행사** 중간고사에 지친 동아리 학우들을 위하여 햄버거와 콜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힘든 시험 준비를 동아리와 함께 이겨내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KUSA 와 함께 졸업사진을** 졸업사진을 찍는 동아리 학우분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의 사진을 남겨줬습니다.

**| 고려대학교 KUSA와 2차 대면식** 고려대학교 KUSA와 연세대학교 KUSA의 서로간의 동아리원들이 안암에서 모여 대면식을 하면서 친목을 한 번 더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55기 신입기수 엠티** 55기 신입기수의 기장 주도하에 신입기수들끼리 좀 더 친목을 다지기 위해 일영유원지로 MT를 다녀왔습니다. 이를 통해 신입부원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어 서로 좀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 AKARAKA** 동아리원들과 함께 한 아카라카는 대학생들의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됐습니다.

**| 2017년 연세대학교 대동제 KUSA 주점** 동아리 연합회의 일원으로 주점

을 진행하며, 많은 수익은 내지 못했지만 동아리 일원들이 합심하여 주점을 운영하면서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점이 끝난 후 다 같이 뒤처리를 하고 난 뒤 뒷풀이를 진행하였습니다.

**| 대동제 뒷풀이 MT** 대동제 때 일을 하느라 고생한 인원들과 함께 주점 때 쓰고 난 후 남은 물품들과 음식들을 가지고 파티룸으로 MT를 갔습니다.

**| KUSA 기말고사 간식행사** 기말고사에 지친 동아리 학우들을 부리또와 음료수를 준비했습니다. 힘든 시험 준비를 동아리와 함께 이겨내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2017년 1학기 종강총회와 종강파티** 2017년 1학기를 끝마치며 종강총회를 열었습니다. 다사다난한 1학기를 무사히 마친 것을 기념하고 또 반성하며 회의를 끝마쳤습니다.

**| 봉사부 최우수 부서활동 축하기념 회식** 봉사부, 미화부, 기획부 세 개의 부서 중 한 학기동안 제일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부서 내의 사람들끼리 친목을 잘 다진 봉사부에게 회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회식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서원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활동사진



4/27 소모임



9/23 연교전



5/2 기수오펠티



5/25 대동제 주점



9/30 총옐티



임원진					
직책	이름	학과	직책	이름	학과
회장	김민수	기계자동차공학부	부회장	주상언	기계자동차공학부
총무	김온유	수학과	기획	손다현	수학과
회원					
번호	이름	학과	번호	이름	학과
5	이은혁	전기전자공학전공	32	김문규	전기전자공학전공
6	박준석	첨단소재공학부	33	김병철	전기전자공학전공
7	조성훈	전기전자공학전공	34	변성용	전기전자공학전공
8	한민중	전기전자공학전공	35	김재현	전기전자공학전공

9	김나영	아동가정복지학과	36	오현경	물리학과
10	구지연	아동가정복지학과	37	한다은	화학과
11	이민지	수학과	38	박슬아	수학과
12	이동민	전기전자공학전공	39	김태혁	기계자동차공학부
13	손호진	건설환경공학부	40	장태훈	기계자동차공학부
14	최영화	기계자동차공학부	41	김현민	기계자동차공학부
15	고예슬	식품영양학과	42	정수현	섬유디자인
16	곽원형	간호학과	43	최수빈	섬유디자인
17	최취주	간호학과	44	문채정	생명과학부
18	안지우	IT융합전공	45	김령아	생명과학부
19	황예린	국제관계학과	46	나혜선	경찰학과
20	김유리	아동가정복지학과	47	장소현	중국어중국어과
21	김기혁	역사문화학과	48	민지영	중국어중국어과
22	서성규	첨단소재공학부	49	김가영	아동가정복지학과
23	최한아	아동가정복지학과	50	김수빈	생명과학부
24	이다빈	아동가정복지학과	51	김소현	수학과
25	김은영	아동가정복지학과	52	김은지	수학과
26	김주용	아동가정복지학과	53	이시은	수학과
27	김유선	아동가정복지학과	54	전지은	수학과
28	하소미	아동가정복지학과	55	임동섭	건설환경공학부
29	조민지	아동가정복지학과	56	김민준	건설환경공학부
30	강민정	아동가정복지학과	57	박유수	건설환경공학부
31	김홍윤	주거환경학과			

## 활동 보고

1월에는 리더십트레이닝(LT) 행사를 동아리원들과 다녀왔습니다. 지난 한해를 잘 보내고 새로운 한해를 잘 맞이하자는 의미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참여했던 행사들중에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강평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3월에는 개강총회를 하였습니다. 2017년 새내기들과 함께 동아리의 일년 목표와 진행하고 있는 활동과 프로젝트, 다양한 봉사활동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였습니다. 새물결 대학교 또한 3월에 실시하였습니다. KUSA의 새물결 운동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느끼고 새내기들과 재학생들의 친목도모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배려심을 길렀습니다.

4월에는 중구 문화원과 함께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전에 도후부 관할이었던곳을 도후부사와 포졸, 호위무사등의 분장을 하고 행차하는 행사였습니다. 신문과 방송국등의 여러 매체에서도 취재를 왔으며 옛 문화를 현대까지 보존하는 뜻 깊은 행사입니다.

6월에는 '만남의 장'이라는 행사를 하였습니다. 역대 KUSA 회원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체육대회로써 함께 어우러져 예전과 현재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었을 뿐만아니라 앞으로 개개인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조언과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였습니다.

7월에는 향토사랑 대행진을 하였습니다. 향토사랑 대행진은 나고 자란 고향을 직접 내발로 밟는데 의미를 두고 있으며 올해는 울산 뿐만아니라 울산 근교의 다양한 도시를 직접 행진하였습니다.

8월에는 올해로 44년째 되는 조국순례 대행진을 동아리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유네스코위원회의 이념에 따라 사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개인의 건전한 정신과 지도자적 인격의 함양을 꾀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목표로 협력하여 성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의 코스는 부산에서 남해까지 300여 km의 코스였으며 참여자들은 힘든 고난을 겪고 헤쳐 나가는 활동을 통하여 단체로써, 개개인으로써 자기 자신의 극복이라는 굉장히 큰 성과를 얻었으며 서로를 배려하며 의지하였습니다.

한 학기동안 동아리를 이끌어가면서 느낀 점은 어떤 단체의 장을 맡아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그리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등을 따라가다 맨 앞에 서서 사람들을 이끌다 보니 부담감도 있었고 책

임감도 있었습니다. 저는 동아리를 하면서 저 스스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KUSA의 많은 동아리원들이 함께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유네스코 학생회의 이념에 따라 사람들과 사회에 봉사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아리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계속하면서 긍정의 선순환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면 언젠가는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회를 바꾸는 것은 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규모 봉사활동, 혁신적인 환경보호 시설, 국가단위의 발전 사업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의식 함양, 지속가능한 목표들을 확실히 인지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진지하게 논의하는 태도, 눈 앞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마음가짐 등의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개개인의 힘들이 모여 사회 전체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활동사진



만남의장



향토사랑대행진



향토사랑대행진



조국순례 대행진



조국순례 대행진





## 활동 보고

**| 개강총회** 새 학기를 맞으며 재학생, 복학생들의 한해 참여를 유도하고, 면면을 익히는 날

**| 중앙박물관 유네스코 이집트 보물전** 파라오전 박람회 동덕여자대학교와 함께 중앙박물관에서 진행한 유네스코 파라오전을 박람회했다. 제정일치국가인 고대 이집트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파라오와 제사장 유물을 박람회하였으며, 4인1조로 하여 박물관을 박람회하고, 지회간 친목을 다지는 날을 가졌다.

**| 창립제 & 신입생환영회** 유네스코 대학생연합회 중앙대지회의 51주년 창립제를 가졌으며, 신입생 환영회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또한 졸업생 동문회 회장이 방문하여 중앙대 지회가 그동안 걸어온 길과 앞으로 가야할 길을 제시해주는 자리를 가졌다.

**| 멤버십트레이닝** 쿠사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는 멤버십 트레이닝 행사는 조별 요리대회, 그리고 사회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토론시간과 스텐트를 진행한다. 그 뒤 저녁식사를 하고 그 시간동안 조 인원끼리 친해지는 시간을 가진다. 밤이 어둑해진 이후로는 일정거리별로 선배들이 포스트를 서서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 지 알게 되는 시간을 가지고 포스트를 마친 후,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진다.

**| 여름축제주점** 중앙대학교 5월 여름 축제에서 주점을 운영하였다.

**| 종강총회**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진다.

**| 낚시대회** 낚시대회를 하며 동문회 선배님들과 현 동아리 멤버간의 친목을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 개강총회** 새 학기를 시작하며, 동아리에 남은 신입생과 새로 복학한 선배들의 면면을 익히는 자리이다.

**| 리더십트레이닝** 기수별 임원단을 맡았던 선배들과 현재 임원단, 그리고 신입기수의 회장을 맡을 것 같은 신입생들과 함께 우이동 펜션촌에 가서 한해 행사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자리를 가졌다.

**| 쿠사인의 밤** 휴학, 인턴, 취업준비 등 바쁜 일정으로 얼굴을 많이 볼 수 없었던 쿠사인들과 다시 만나는 자리이다.

**| 종강총회** 회장선거와 더불어 회계발표, 한해 피드백을 하고 임원진을 물려주는 자리이다.

임원진					
직책	이름	학과	직책	이름	학과
대표	정우현	소프트웨어	부대표	구선경	유아교육학과
총무	이은솔	간호학과			
회원					
번호	이름	학과	번호	이름	학과
4	신진환	경영학과	13	박창희	전자전기공학부
5	안희진	경영학과	14	윤성현	전자전기공학부
6	박동주	사회기반 시스템공학과	15	어승범	전자전기공학부
7	김태동	사회기반 시스템공학과	16	박영재	전자전기공학부
8	문해림	화학공학과	17	김유진	전자전기공학부
9	양명훈	사회기반 시스템공학과	18	정민우	전자전기공학부
10	이가영	유아교육학과	19	박은혁	전자전기공학부
11	류재민	기계공학과	20	이선욱	전자전기공학부
12	나상호	전자전기공학부			

활동사진



이집트 보물전-파라오전



신구동문 낚시대회



리더십 트레이닝



쿠사인의 밤



멤버십 트레이닝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한국외국어대학교



임원진					
직책	이름	학과	직책	이름	학과
회장	우소원	경영학과	부회장	조민지	경영학과
총무	이진성	말레이 인도네시아어학과	기장	신현욱	경영학과
부기장	편성현	경영학과			
회원					
번호	이름	학과	번호	이름	학과
6	유흥국	경영학과	27	이용진	경영학과
7	양채은	경영학과	28	최재영	인도학과

8	우도건	경영학과	29	김보연	경영학과
9	이다정	영어학과	30	박수한	경영학과
10	하지호	네덜란드어학과	31	이하림	경영학과
11	천관희	경영학과	32	박진영	경영학과
12	임정하	경영학과	33	장상엽	경영학과
13	이가을	경영학과	34	윤현서	경영학과
14	김한	경영학과	35	동진우	경영학과
15	이호정	일본어언어문화학과	36	이세연	영어학과
16	한승빈	경영학과	37	박진홍	경영학과
17	송경민	경영학과	38	이정엽	경영학과
18	이시윤	경영학과	39	허재복	경영학과
19	이승지	EICC학과	40	김하림	경영학과
20	이종성	경영학과	41	이경재	경영학과
21	김지원	경영학과	42	정서영	경영학과
22	김덕엽	경영학과	43	이지윤	경영학과
23	용상우	영어교육학과	44	최민기	행정학과
24	박재언	경영학과	45	김민주	경영학과
25	권기범	경영학과	46	박선영	말레이 인도네시아어학과
26	박도울	경영학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봉사 동아리 KUSA는 2017년 1년 동안 드림스타트 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봉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공릉 행복발전소에 방문하는 센터봉사와 노원 인근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 봉사를 실천하는 가정방문 봉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센터봉사는 센터에 오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센터에서 학생들의 과목 수요에 대해 먼저 알아본 뒤, 그에 맞게 KUSA인원을 배치하였습니다. 주로 수학, 영어, 한자 같은 과목이 되었으며, 교육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은 야회활동 도우미 역할로도 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정방문 봉사는 드림스타트 측에서 보내준 가정명단에 KUSA인원을 배치하여, 2인1조로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노원 인근 가정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교육봉사를 진행하였으며, 세부활동 내용은 해당 인원이 아이들과 재량으로 상의하여 정하도록 했습니다. 주로 수학과 영어와 같은 주요과목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졌습니다.

드림스타트 봉사가 이전의 봉사활동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보다 개별적이며 세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일괄적으로 하나의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찾아 필요한 부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봉사가 진행되다 보니 아이들과 정서적인 교감을 더 할 수 있었고, 동시에 활동에서 오는 보람 또한 굉장히 컸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봉사활동은 '나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을 불러일으켜, 봉사자로 하여금 봉사에 더 몰두하게 했고 '해야 하는 봉사'가 아닌 '하고 싶은 봉사'가 되게 하였습니다. 당연히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KUSA인원들도 굉장히 만족했고 여러모로 보람있는 활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선해야 할 점이나 문제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선 봉사활동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진행상황이나 여부를 확인하고 통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봉사활동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런 활동을 통합할 수 있는 종합일지, 정기적인 봉사종합모임의 필요성을 체감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단순한 '교육'이 아닌 '교육 봉사'이므로 가르치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서적 교감, 연대'에도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중학생이라는 시기상, 사람들에게 마음을 쉽게 열지 않고 상처 또한 잘 받으므로 조금 더 세세한 관심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 KUSA에서의 가장 핵심 활동은 '제주 더덕분교'에서의 활동이었습니다. 2017년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었던 봉사는 3월부터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1학기 개강 후부터 봉사를 갈 수 있는 학생들을 동아리 내에서 모집하였고 최적의 기간, 지역 그리고 봉사할 학교를 선정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선발된 곳은 제주도에 위치한 '애월초등학교 더덕분교'입니다.

KUSA 회원들이 학기 중은 물론 특히 여름방학동안 자금을 모으는 활동부터 4개의 교육팀으로 나눠 한국외대의 모토인 '세계'를 주제로한 여러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교재와 활동자료들을 만드는 것까지 최고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세계'에 기반한 주제들 예를 들어 각국의 통화, 무역놀이를 통한 돈의 개념 확립, 각 나라의 유적과 역사 등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나가는 것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고 많은 고민을 거듭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림스타트에서 학생들과 봉사했던 회원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단순한 '정보의 전달'보다 '놀이'를 섞은 활동이 효율적이며 관심을 끌 수 있다 판단하여 놀이에 접목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실, 외대KUSA의 여름봉사활동은 쭉 진행되어오다 2년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홍보도 미미했고 참여율도 역시 저조하였기 때문인데 이번활동을 통해 우리 KUSA만의 고유의 활동을 다시 정립할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대규모로 진행된 활동이었기에 문제점이 크게 드러났는데 바로 동아리 내에서의 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프로젝트를 진행하던지 간에 '소통'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동아리 회원들끼리 가장 친해지기 쉬운 방법은 자주 만나는 것이지만, 이번 드림스타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각자 다른 곳으로 봉사를 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다는 점이 컸기 때문인지 제주도 봉사팀끼리도 처음 친해지는데 다소시간이 걸렸고 제주도 봉사를 가는 모든 사람들끼리도 어색함을 풀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더욱이 임원들이 '효율성'을 생각하여 미리 회의 논제를 정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였던 것이 오히려 봉사원들의 의견을 듣지 못하게 되는 큰 문제를 낳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규모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봉사자간의 소통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점을 간과

해버렸습니다. 후에 늦게나마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단순히 '봉사를 한다.'를 넘어서 우리 스스로가 '꾸러가는 봉사'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예년과 다르게 새롭고 어쩌면 도전적인 활동들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를 진행하면서 동아리 회원들도 많은 것을 깨닫고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지 않나하고 생각합니다. 봉사란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이라는 국한된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도 역시 발전을 하고 도움을 받는 상호적인 교류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동아리원들 모두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활동을 통해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 활동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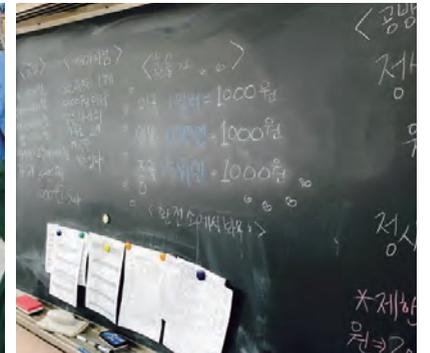
제주도 봉사 회의



상가리 마을회관 어르신 돕기



더러분교에서 실시한 활동



무역놀이 설명



교육 시뮬레이션 및 준비



## 활동 보고

저희 지회 활동은 활기차고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우선 올해 2월 졸업하는 형, 언니들의 졸업식 및 졸업생 환송회를 진행하였고 임원단들 끼리 친목을 다지기 위해 롯데월드를 갔습니다. 3월 개강하고 개강총회, 55기 형언니들을 모집하는 가두모집 및 신입생 환영회, 엠티를 진행 하였습니다.

저희 지회는 토론 동아리이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마다 다양하고 동아리 원들이 원하는 주제로 토론 총회를 진행하였고 중간고사 기간이 끝난 후 시험의 여독을 풀기 위해 치킨총회를 진행하여 선후배간의 친목을 다졌습니다. 5월에는 학교 봄 축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낮에는 플리마켓에 참여하여 축제 마지막 날 쿠사인의 밤을 진행할 공금을 모았고 쿠사인의 밤에는 재학생 및 동문이 함께 어우러져 한양대 에리카 쿠사의 대대적인 친목의 현장을 조성하였습니다.

6월은 기말고사 기간이다 보니 종강총회를 진행하였고 2017년도 1학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방학 중에는 한국 유네스코 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SDG활동을 통해 여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글로벌 리더의 자세를 키웠습니다. 또한 코스모스 졸업을 하는 형, 언니들을 위한 졸업식 참여 및 졸업생 환송회를 진행하였고 졸업을 축하드렸습니다.

9월 개강이후 개강총회, 가두모집, 엠티, 신입생 환영회를 진행하였고 가을 축제에서도 플리마켓과 쿠사인의 밤을 진행하였습니다. 10월에 긴 추석연휴로 인하여 바로 중간고사 기간이 되어 토론총회를 많이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난 후 에리카 지회의 연중 가장 큰 행사인 제 38회 창립제를 11월 18일에 진행하기 위해 3주 인텐시브 연습에 돌입하여 재학생 및 동문 포함 1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창립제를 성황리에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많은 행사를 하면서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1년의 임기동안 공부와 학교 그리고 동아리 일을 병행하다보니 눈뜬 새가 없었지만 바쁘면서 임원들

### 임원진

직책	이름	학과	직책	이름	학과
회장	한지수	영미언어문화학과	부회장	김치훈	국방정보공학과
총무	지선혁	로봇공학과	회우	설지연	영미언어문화학과
홍보	김윤지	일본언어문화학과	학술	이지훈	건설환경공학과
서기	박주희	일본언어문화학과			

### 회원

번호	이름	학과	번호	이름	학과
8	박상우	기계공학과	12	신나라	영미언어문화학과
9	박제민	기계공학과	13	김준성	산업경영공학과
10	이초원	한국언어문학과	14	한승훈	로봇공학과
11	진슬아	영미언어문화학과	15	정도영	기계공학과

과 선배들 그리고 신입생 후배들과 많은 교류를 할 수 있어서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역사가 깊은 동아리인 만큼 전통이 있고 선배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되는 자리였지만 쿠사의 일원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도와주고 가족처럼 지내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한국유네스코위원회와 같이 일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 활동사진



신입생 가두모집



5월 동문 체육대회



2학기 가을축제 쿠시인의 밤



총회 뒷풀이



2학기 엠티



11.18 창립제



6	고경준	기계공학부	20	김승현	기계공학부
7	최정희	기계공학부	21	이진경	경영학부
8	강하라	무용학과	22	권호석	정책학과
9	김수정	경영학부	23	김대건	정책학과
10	김영목	신소재공학부	24	박태웅	융합전자공학부
11	장윤지	응용미술교육학과	25	신예람	정책학과
12	정지민	신소재공학부	26	심영석	정책학과
13	최도원	응용미술교육학과	27	양원준	정책학과
14	옥순환	기계공학부	28	정진률	융합전자공학부
15	원찬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29	차형규	융합전자공학부
16	이세강	건축학부	30	최정배	정책학과

임원진					
직책	이름	학과	직책	이름	학과
회장	민수빈	정책학과	부회장	김민철	기계공학부
회원					
번호	이름	학과	번호	이름	학과
3	이상민	컴퓨터공학부	17	이혜진	관광학부
4	송재열	실내건축 디자인학과	18	전효진	국제학부
5	최영석	물리학과	19	김승연	행정학과

## 활동 보고

한양대학교 KUSA는 한국사회를 연구하는 학술동아리로서, 매년 전체 활동의 큰 방향인 기초를 설정하고 그에 맞춰 토론, 토의를 비롯한 활동들을 기획하여 진행합니다. 올해는 '한국 전통사회의 재조명'이라는 기초를 설정하였고, 댓거리의 형식을 위주로 여러 활동 및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 1. 댓거리

3월 16일, 첫 활동으로 유교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댓거리를 진행했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는 교육에 큰 가치를 두어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교육을 이수한 교양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 제도를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일률적인 주입식 지식 전달에 불과한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 정치적, 인륜적인 부분 등에서 비윤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교육제도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입시에만 초점을 맞춘 교육현장이 도덕, 윤리적 가치를 뒷전으로 둔 것이 원인이 된다고 보고 전인적 교육의 필요성을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전통사회 교육의 핵심이었던 유교적 사상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를 펼침으로써 전통적으로 강조됐던 유교적 교리가 현대 교육에서 차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의도했고, 처음 진행해보는 활동으로서 발생한 사회자의 진행 미숙이라는 점 외에는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3월 23일에는 전통식문화에 대한 논란으로 개고기 섭취가 큰 이슈인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선사시대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뤄졌던 식습관이 지금은 한국에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고유한 풍습이 된 배경과 타 문화권에서 이를 비난, 비판하는 이유 등을 고찰함으로써 건전한 시각을 함양하고자 의도했던 댓거리였습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논쟁이 이뤄지고 있는 주제라서 그런지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시험기간 이후 5월 4일에는 퇴색되어가는 전통건축에 대한 댓거리를 진행했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지는 미적 감각을 보여주면서도 환경적 조건에 맞는 실용적 구조를 갖춘 고유의 건축 양식이 일제강점기와 전쟁 등을 겪으며 퇴색되었고, 이후 서구 도시의 고층 빌딩과 아파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한국 전통건축문화는 더욱 사라지는 상황 속에서 전통건축양식의 장단점과 차별성, 현대사회에서의 변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학기가 된 이후로는 9월 14일에 전통사회의 혼례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혼례문화 및 전통사회의 성역할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하여 흔히 '남존여비', '남성우월주의'와 같은 키워드로 떠올리는 고정관념을 타파하고자 하였습니다.

댓거리라는 것이 절차나 찬반 등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소재에 대한 자유로운 이야기가 가능한 자리이다 보니 때로는 다소 관련 없는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오히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것에도 의의가 있기에 역효과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진행하면서는 좀 더 짜임새 있는 진행을 준비해야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 2. 답사

5월 4일에 진행한 전통 건축에 대한 댓거리와 연계하여 5월 13일 경북궁에 직접 방문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회루 입장까지 예약하여 자세히 둘러보자 하였으나 당일 날씨가 많이 좋지 않아 생각보다 세세하게 살펴볼 수 못하고 근처의 고궁박물관을 관람하는 것에 그쳐야 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9월 21일에는 판소리와 현대 서양극의 크로스오버를 연출한 창작극 <판소리 햄릿>을 소월아트홀에서 관람했습니다. 서양적 요소인 햄릿에 마당극 형식을 적용해 판소리를 가미하여 풀어낸 작품으로, 문화적 측면에서 전통적인 요소의 현대화를 보여주는 사례를 눈앞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 사회의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변용하려는 문제의식과 노력이 단연 저희 동아리 내에서만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도 공감을 사고 있고 그런 결과물이 산출되고 있는 것에 큰 감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통적 요소의 변용이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 한 딱딱하고 어려운 방법, 일반인에게는 다소 접근성이 떨어지는 방법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비전문가 집단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접근할 수 있으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 3. 행사

4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 동안 청평에 가서 봄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신입 회원들을 모집한 뒤 다른 동아리 회원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친목의 기회이자, 한국 사회를 연구하는 학술동아리라는 한양대 KUSA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한 해 동아리 활동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단히 고사를 지내고 제문을 태우기도 하며, 신입 회원들이 특정 주제에 대

한 찬성, 반대 의견을 바탕으로 토론을 스스로 주재하고 참여하는 삼각토의, 협동심을 기르는 오리엔티어링과 약 한달 간 철사 천, 솜 등으로 크게 만든 글씨를 태우면서 기념하는 파이어레터링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삼각토의의 경우 평소 진행하는 기조 관련 덧거리와는 다소 다른, 좀 더 가벼우면서도 흥미를 둘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고, 워크숍 자체를 통해 친목을 다짐으로써 앞으로의 동아리 활동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참여율을 증진시키려는 궁극적인 목표 또한 이루고자 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야외에서 진행되는데,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다소 차질을 빚기도 했으나 준비하고 진행하는 입장에서 상황 대처 능력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1안 외에도 2안의 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지난 11월 11일에는 창립제를 진행했습니다. 올 한 해 진행한 기조 관련 활동들을 바탕으로 기조와 관련된 주제를 정해 학술 발표를 진행했으며, 참석한 다른 동문 선배님들과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는 '공론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정책이나 정치적 결정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결정에 있어서 권위주의와 계급제라는 폐쇄성을 지니던 과거 전통 사회에서도 공론화 과정이 필요했는지, 가능했는지, 공론화가 이뤄졌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 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현대 민주 사회에서는 당연히 되는 부분인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 및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평소 활동을 같이 하지 못하는 동문 선배님들과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자리임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 활동사진



평소 활동으로 덧거리 진행



봄워크숍 내내 함께할 조를 편성하여 조 이름과 구호 소개



봄 워크숍이 끝난 후 귀가 직전



경복궁 답사



<판소리 햄릿> 관람



창립제 학술발표 진행

## 2017 유네스코학생회 활동보고서

펴낸때 2017년 12월 26일  
펴낸곳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펴낸이 김광호  
편집 김은영 유수정  
디자인 ㈜금강디자인브릿지 (02 2266 6750)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우)04536  
전화 (02) 6958 4100  
팩스 (02) 6958 4250  
이메일 youth@unesco.or.kr  
홈페이지 www.unesco.or.kr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행물등록번호 | YT2017RP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7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17